

윤석열 대통령 부부, 영국 동포 초청 간담회 개최...

“양국 협력의 지평을 AI, 원전, 바이오, 우주, 반도체, 청정에너지 분야로 확장해 나갈 것”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늘(현지시각 11. 20, 월) 오후 현지 동포를 초청하여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는 영국 전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200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올해가 한-영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으로, 6.25 전쟁 당시 영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군대를 파병하고,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도 산업과 기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양국이 뿌리 깊은 협력과 연대의 역사를 가진 다”고 했다.

대통령은 “오늘날 한국과 영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 동반자이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연결된 경제 공동체로 발전했다”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안보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무역 협력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도모하는 한편, 양국 협력의 지평을 AI, 원전, 바이오, 우주, 반도체, 청정에너지 분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영국에 뿌리내리고 열심히 일해 온 동포들의 노력 덕분에 한영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다”면서, “4만 명 규모로 서유럽에서 가장 크게 활발한 한인 사회를 형성한 재영 동포들이 앞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면서 한국과 영국을 잇는 든든한 가교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모국과 동포사회를 긴밀히 연결하면서, 동포들을 지원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이어 “영국에서 운영 중인 23개의 한글학교가 동포 자녀들의 한글 교육과 역사 문화 교육에 힘



쓰고 있음을 평가하고, 재외동포청도 영국에서 성장하는 차세대 동포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지켜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동포 대표로 환영사를 한 김종순 JS Holdings Group 대표는, “윤 대통령께서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이후 영국을 방문한 첫 국빈이라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활약하는 대한민국의 에너지에 힘입어, 영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한영 간 우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각자의 다양한 경험과 소감을 소개했다.

김승철 재영한인사협회장은 ▲재영 동포사회 대상 의료 상담 및 진단 ▲한인 의대생 대상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한인 고등학생 대상 의·치대 진학 세미나 개최 등 그간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이 같은 협회 활동에 대한 동포사회의 응원과 격려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의료봉사, 교육, 후배 양성을 통해 동포사회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캐피털시티컬리지그룹의 장승은 국제처장은 영국에서 한-영 학생 간 교류사업과 한식 홍보 활동을 실시한 경험을 공유했다. 장 처장은 자신이 영국에 오기 전에 서울 영국문화원의 교육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영국 문화의 인기를 부러워했었는데, 이제는 영국에서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열풍이 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신나고 즐겁게 일하

고 있다고 말했다.

조솔 민주평통 영국협의회 자문위원은 동포사회를 대상으로 통일 교육에 힘쓰고 있다고 하면서, 동포사회 내 세대 간, 언어 간의 차이를 감안하여 효과적인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조 위원은 무조건적인 ‘평화 지향’ 접근이 아닌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통일 교육을 실시해 청년 세대가 통일의 지향점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간담회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차세대 성악가 동포 테너 김정훈, 소프라노 이혜지 부부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Think of Me’, ‘축배의 노래’ 공연으로 마무리됐다.

최광수/기자

김동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국회에 요청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임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국회를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전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그동안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 심사 완료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라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요청했다.

또한 특별법과는 별도로 원도심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여러 의견에서 도시재정비법 개정을 통한 원도심 정비 대책을 제시하셨듯이 원도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는 이번 특별법에서 제외되는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지난해 대선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됐던 것으로, 특별법이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

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곡 등 13곳 택지지구 6천548만㎡, 45만 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올해 2월 정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지난 5월까지 발의된 13건의 관련 법안이 현재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병합심의 중이다.

만약 특별법안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치회의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 처리되지 않

으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구

성되는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주민들의 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므로, 우선 법안이 처리되고 미진한 사항은 추후에 추가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인접 원도심을 포함토록 하고, 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도(道)로,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지난 2월에 제안해 대부분 수용됐다.

4월에는 인구구조·사회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편의시설 조성, 운영·유지관리 규정 신설을 제시했다. 분당 정자교 붕괴 발생 이후인 4월 말에 특별법상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기반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내용 추가를, 11월에는 노후계획도시에서 발생한 재건축부담금의 일부를 원도심 정비사업에 지원토록 하는 원도심 상생방안을 국토부에 전달한 바 있다.

김병삼/기자

경북도, 림피스킨 추가 확진 발생... 차단 방역 총력



경북도는 11월 20일 예천의 한 농장에서 한우 5마리가 림피스킨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11월 14일 김천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 약 1주일 만에 2번째 확진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21일 예천군청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추가 확산 방지 및 상황 안정화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차단 방역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경북의 소 사육 비중이 전국 20.7%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다른 시군에서도 현재 대응 체계를 격상,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적극 검토하여

김천 이어 예천에서 도내 2번째 림피스킨 확진 발생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경북도는 확진 판정을 받은 5마리는 살처분을 했고, 확진 농가 10km 내 소 사육농장 627호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 및 전화 예찰을 진행하고 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김천에 이어 2번째로 림피스킨 확진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확산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차단 방역에 총력을 다해 더 이상 추가 확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전남도, 취약계층 두텁고 촘촘한 겨울나기 온 힘

전라남도가 동절기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전남도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동절기 에너지 저가 지원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부담 완화에 역부족이라고 판단,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 집중 발굴 및 다양한 추가 지원 사업과 연계한 전남형 동절기 보건복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12월부터 동절기 위기가구 집중 지원으로 큰 성과를 거둔 우리동네 복지공동체 지원 대상을 당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에서 생계가 어려운 일반도민까지 대폭 확대했다. 우리동네 복지공동체는 2019년 4월 전국 광역 시·도 최초 민간 합동 자원봉사 조직이다. 보일러 교체 등 난방시설 수리 및 화재 예방 점검, 생활 안전금고 등 최대 70만 원 지원, 노후주택 개선 사업에 최대 150만 원 지원 등 두터운 복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동네 복지공동체 등에서 발굴한 위기 가정은 긴급복지 지원 제도



에 연계돼 1인 가구 기준 생계 유지비 월 62만 3천 원과 동절기 연료비 월 15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남도는 긴급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최근 국비 17억 원을 포함한 총 21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더 촘촘한 취약계층 보호에 나선다.

22개 시군 9천212개의 경로당에는 난방비 월 최대 33만 5천 원을 5개월간 지원하고, 따뜻한 식사를 위한 양곡비 35만 1천 원도 지급한다.

저소득 어르신에게 든든한 식사 지원을 위해 노인복지관 등 160개소의 경로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도시락 배달 서비스와 함께 안부도 살핀다.

또한 정부의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등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50~64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도 추가로 백신비를 지원한다. 겨울철 발병률이 60% 이상 높은 결핵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결핵

검진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해 2천516명의 어르신 지킴이단이 동절기 집중 안부 살피기 추진 등 추운 겨울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오는 12월 전남도공동모금회, 전남도사회복지협의회 등과 협력해 직접 담근 사랑의 김장김치 6천 박스(50톤)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이·통·반장, 우리동네 복지공동체나 24시간 위기가구 지원 콜센터 120번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겨울철 난방 수요 증가에 따른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두텁고 촘촘한 겨울나기를 위해 정부 지원사업과 함께 다양한 전남형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강력한 한파 발생 빈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 겨울 도민 모두가 온기 넘치고 함께하는 전남이 되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 1~2월 취약계층에게 난방비 165억 원을 지원했으며, 8월 모은 경로당에 난방비 28억 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민생시책을 추진했다.

박종배/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2023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소통간담회' 개최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12시 10분, 시장실에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과 소속 협회장 등을 만나 문화예술계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는 10개 회원협회(건축,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영화, 음악)와 167개 연합회·지회로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지역 문화사업, 문화예술교육, 예술가 지원 등 한국 예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예술인의 권익 신장에 앞장서고 있다.

오 시장은 문화예술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서울시가 예술인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재능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테니 각 문화예술단체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또한 “공연봉사, 청년문화패스 등과 같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문화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사업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이라며 힘주어 말했다.

최광수/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로 유종의 미 거둬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경상북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한 보충감사를 끝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7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의 전 과정을 일선 학교장들이 실시간 방송을 통해 모니터링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현장으로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지난 7일 본청 감사에서는 지역 상생 차원에서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원활한 추진을 당

부하고, 공립 대안학교 설립과 관련한 대책 마련, 기초학력부진 해소 및 학력 증진에 대한 관심 촉구, 학부모 교육의 확대 시행, 원거리 통학생 및 기숙사생들에 대한 교통, 급식 등 생활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한 특성화고 졸업자 채용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 및 인력 관리 대책, 폐교재산의 다양한 활용 방안, 선금 지급 후 공사 지연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20일 본청 보충감사에서는 자료 제출에 대한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하며 성실

히 감사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생명사랑센터 및 학생정신건강 관련 전반적 사항, 학교폭력 '바라지원1365'의 기능과 역할,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그리고 평생교육 관련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늘봄학교 필요 인력 지원, 경북미래교육지구 활성화, 목적 사업비 불용액 최소화, 사립유치원 회계 에듀파인 정착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관급자재 미사용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으며, 각종 위원회 위원 성비 불균형 대책, 교육공무직원 전보 관련 문제점 개선 방안, 교직원 관사 제공의 형평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시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사항을 심도 있게 질의했다.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익계약 시 지역 업체를 우선 구매할 것을 다시 한번 더 요구했으며, 그린스마트스쿨 및 학교복합시설 등 대규모 학교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 스마트기기의 적극적 활용, 각 교육지원청별 맞춤형

특색 사업 추진, 진로·진학교육의 중요성,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전문인력 확보, 디지털 성범죄 증가에 따른 예방 대책 강구 등을 강조했다. 또한 감사위원들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학교 현장을 찾아 모듈러 교실 설치·운영, 과대·과밀학교 및 자유학기제 운영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지난 17일 직속기관 감사에서는 교직원 연수 과정의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주문하고,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한 교사 연수를 강조했다. 4개 도서관에 대해서는 지자체 도서관과는 다른 특색있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했으며, 폐기대상 도서에 대한 재활용 방안 강구, 도서 구입 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서점 활용, 도서관 희망일자리실무원 등 채용 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철저 등을 당부했다.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총평을 통해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정책 및 대안에 대하여 향후 교육정책에 반드시 반영하고, 경북의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 국비사업 건의 국회 방문

11월 20일, 지역 국회의원 만나 주요 현안사업 예산 반영 건의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은 11월 20일 국회를 방문해 대구지역 주요 현안사업이 2024년 국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 방문은 2024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됐거나 일부 반영된 대구시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국비확보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만규 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을 비롯해 윤재옥 의원, 이인선 의원, 김상훈 의원, 강대식 의원, 김승수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을 국회 및 대구경북신공항 투자설명회장에서 잇달아 만나 대구지역의 10개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비 추가 반영을 집중 건의했다.

이번에 건의한 10개 사업 중 시민생활

과 밀접한 주요 지역현안 사업으로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군위 화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 제공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지역의 첨단산업 혁신에 필요한 사업으로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능형 반도체 개발·실증 지원' ▲미래모빌리티 특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모빌리티 실체환경 모사 전차파 장애 평가시스템 구축' ▲비수도권 웹툰산업 거점센터 조성을 위한 '대구글로벌웹툰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 등이 지역 국회의원의 전방위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업으로 요청했다.

이어, 이만규 의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깊이 공감하며, 달빛고속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당 차원의 총력을 부탁했다.

이만규 의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비 확보에 힘을 보태기 위해 바쁜 일정에도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을 추진했다"며, "내년도 재정 여건이 어느 해보다 어렵겠지만, 오늘 건의한 현안 사업들은 대구의 미래를 위해 미루거나 양보할 수 없는 사업인 만큼,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김홍구 경북도의원, 장기사업의 신중한 검토와 다양한 관광산업 및 문화재 발굴 제안

도와 교육청 차원의 작은학교 지원 방안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 국민의힘)은 제34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북 장기추진사업, 경북 관광산업 개발 및 문화재 발굴, 작은학교 지원 방안 등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하여 이철우 도지사과 임종식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펼쳤다.

김 의원은 현재 경북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장기사업은 하천정비사업을 제외하고 10월 기준으로 34개 부서에서 88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추진율이 50% 이하인 사업이 20여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 21개 시군에는 359개(총 4,178km)의 하천이 있으며 재해나 태풍, 토사 유실, 자연환경 등에 따라 54개의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1조 4,340억 규모로 대부분 장기추진 사업이다. 그런데 하천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현재 23개 사업이 추진 중지되어 있으며 당초에 계획한 사업완료 기간에서 몇 년이나 연장된 사례도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기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사업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현재 중지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장기사업에 대하여



도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했다. 다음으로 관광산업 및 문화재 발굴에 대하여 질문을 이어갔다. 세계 수준의 문화·생태관광지 도약을 목표로, 2022년 사업비 4조 5,643억원 규모의 제7차 관광계획이 수립됐으며 3대 관광권역으로 힐링관광권, 해양레저관광권, 대도시관광권을 설정하고 있다.

후백제와 신라 문화유산의 메카라 할 수 있는 상주시는 200여 년간 경상도의 중심도시로서 오랜 역사를 이어온 뿌리이지만 7차 관광산업에서는 상주

의 관광자원 활용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경북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문화재 등이 제대로 발굴되지 못한 채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주는 시내 도심에 가운데 두고 생산농지지역으로 묶여있어 도심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거 농사를 지어서 배울 것 먹고 살 때는 마을 근처에 논밭이 있었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며 농업도 중요하지만 도심내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면 사

람들도 찾아오고 지역 소멸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주시 도심내 생산농지지역 해제를 촉구했다.

끝으로 경북 관내 작은학교는 총 342개교(36.4%)로 12개 시군의 작은학교 비율은 절반이 넘었으며 2023년도에 입학생이 0명인 학교도 32개 학교로 전국에서 경북이 가장 많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작은학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어떤 지역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작은학교 비율이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 심각한 수준으로 예산이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연소재지에 하나의 학교조차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학교는 지역과 마을에 교육적 가치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6.25 때 외국의 많은 국가가 전쟁에 참여하거나 의료 등을 지원했는데 참전 및 지원국 장병의 후손들을 농산어촌 작은마을에 유학생으로 유치하여 교육을 지원한다면 양국의 유대도 강화되고 국위 선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도정 질문을 마무리했다.

윤근수/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남궁역 시의원, 자전거도로보다 주민들에게 더 필요한 버스정류장 설치 강력 요청

남궁역 의원, 제321회 정례회에서 동대문구 답십리동 주민들의 숙원인 버스정류장 설치에 대해 강력 요청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3)은 11월 20일 제321회 정례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동대문구 답십리동과 성동구 용답동의 전호대로에 자전거도로를 조정하고 한신휴플러스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맞은편에도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답십리동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앞 쪽은 보도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로 되어 있고, 용답동 쪽은 차로 옆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교통실은 '전호대로 자전거도로 구축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 대상을 포함하여 11월 14일 답십리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남궁역 의원은 자전거도로가 중간에 끊기다보니 자전거 운행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진입하지 않고, 아예 보도를 이용하거나, 맞은편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현황을 확인했으며, 휴플러스아파트 앞에는 지선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용답동 쪽에는 자전거도로 때문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지 못하여 멀리 돌아가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강조했다. 따라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횡단보



도 전에서 보도와 연결하고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남궁역 의원은 "본 의원도 오래전부터 지역에서 매일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다. 서울시내를 자전거도로로 촘촘하게 연결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의 편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전거도로를 조정하여 인근 대다수 주민들이 바라고 필요로 하는 버스정류장을 반드시 설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광수/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철 의원, '부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대표 발의

조례 제정으로 양봉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 근거 마련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제317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박종철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병해충 등으로 기장, 강서 등 꿀벌을 사육하는 농가들의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과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달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성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양봉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양봉산업 규모는 2022년 기준, 전체 27,591농가에서 약 270만 봉군을 사육하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 112농가에서 약 7

천 봉군의 꿀벌을 사육하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에 병충해 발생으로 부산지역 양봉농가에서 꿀벌 약 600봉군이 소멸됐으며, 특히 작년 월동 꿀벌 피해로 전체 사육 규모의 70%가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밀원 면적 당 꿀벌 사육 밀도가 세계 1위로 부족한 밀원 자원과 신규 병해충 발생 등으로 양봉산업의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양봉산업의 원천인 밀원자원의 조성과 함께, 양봉농가에



김희태/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 박명인 · 편집국장: 최재은 · 부회장: 박유석 · 임석경 · 청소년책임기자: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광고국: 1899.9659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제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취학 출국 아동 관리부재, “관리매뉴얼 시급”

미인정 “출국 아동 관리미흡” “유령아동전략 위협노출”



경기도의회 도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위원장 황진희)이 20일 행감에서 연간 500여 명에 달하는 미인정 출국 아동, 추적관리 허점이 밝혀져 교육당국의 ‘유령아동 전략’ 위협 노출이 지적됐다.

우리나라 국적의 미인정 출국 아동들이 해외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는 관리 부재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이들 미취학 아동은 연간 500여 명에 달하고 있지만 출국 이후엔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미비로 취학 유무 등을 확인하는데 교육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유령 아동’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날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은 “부모 출입국 정보를 확인해서 아동의 동반 출국 여부는 확인되지만, 그 이후에 부모가 돌아왔는지, 돌아왔다면 아동이 출국한 국가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혹은 안전한 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외 공관을 통한 관련 행정안내와 관리가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답변에 나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의무교육은 국가의 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지만 (인정 유학과 관련된) 행정 절차들을 몰라서 출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학생들이나 부모들에 대한 정확한 입출국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일부 결혼 이민자들의 경우, 이혼 등의 사유로 가정이 해체된 이후 출국했다가 다시 국내에 복귀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아이는 그 나라에 남겨두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들이 한국 국적인 데도 한국인 정체성과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거기 가서 취학을 했는지 계속 추적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관리 하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 “교육부나, 유관기관에 저희가 건의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호동 의원은 마지막으로 수원 영아 살해 시신유기 사건을 언급하면서 “신생아 관련 사건도 사실은 경기도 보건소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고 감사원에서 이 사건이 촉발되기 전까지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케이스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추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강조하면서 “경기도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이홍근 도의원, “교통카드 데이터에 도 역할 없는 것은 문제”

20일 종합행정사무감사…(주)이동의즐거움에 “데이터 활용 지분 확보 협의” 요청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20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카드 데이터에 대한 경기도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관련업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세금이 투입돼 발생되는 교통카드 데이터에 대해 경기도가 아무런 역할이 없는 것은 문제”라며 “데이터 활용과 정산시스템에 대해 경기도가 공공의 영역에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주)이동의

즐거움(구 (주)코카모빌리티) 관계자는 “데이터는 경기도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보호법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일(日)단위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경기도에 지분 제공 여부는 주주의 영역이다.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초승패널티 요금 배분과 관련, 이 의원은 “초승패널티 발생 요인이 승객의 잘못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기계적 오류도 있을 수 있다”라며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기본 요금 안에서 내렸는데 태그 안했다고 패널티가 부과되면 이용자의 입장에서 억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100% 이용자의 귀책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환승할 때 할인요금을 적용하고 있고, 이용자가 하차 시에 태그하지 못해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이용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계약기간이 2025년에서 2035년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신규 정산시스템과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맞아서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김범상/기자

임창휘 경기도의원, 도시주택실·GH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역주민의 고령화와 인구소멸 방지해야!”

경기도 평균 대비 2배 높은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내 원주민들의 고령화 언급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지난 17일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대상으로 진행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자연보전권역과 팔당수계 8개 시·군이 인접한 경기 동북권역의 인구소멸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특히 광주 남종면과 남한산성면의 경우 지난 40년 동안 인구 절반이 감소했으며 원주민들의 고령화는 가속화되어 경기도 평균 대비 2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고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 원주민들의 인구고령화 심각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어르신들의 돌봄 복지가 필요한 지역인 만큼 공공



이 주도하여 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의 확충뿐만 아니라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친환경 대중교통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 개선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인구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상수원 보호구

역 내 데이터 센터와 같은 첨단시설의 구축을 통해 지역의 재정 확보는 물론 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져 자연스럽게 인구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팔당호 저층부의 저온수를 활용하여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낮추고 수열을 활용하여 전력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공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구소멸 방지를 위해 시설 확충과 인프라 개선에 앞장서야하는 제안에 적극 동의하며 특히 경기 동부권 지역은 중첩 규제로 난개발과 지역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기도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범상/기자

경기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만 남아, 12월 중 결론 날 수 있도록 힘 보태달라”

김동연 지사, 20일 남양주서 열린 북부기우회 정례회 참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을 향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주민투표가 12월 안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서울메가시티에 대해서는 본래 의미와 거꾸로 가는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오전 남양주에서 열린 2023년도 4분기 북부기우회(北部畿友會)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비전과 전략수립, 주민의견 수렴, 도의회 의결까지 다 거치고 마지막 단계로 주민투표만 남아 있다”면서 “12월 중순까지도 결론 난다면 2월 안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주민투표가 이뤄지고 만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성사가 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헌신의 힘을 다해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겠다”면서 “정치적인 것과 아무 상관 없다. 북부의 인력 자원과 보존된 생태와 잠재력은 대한민국 그 어디보다도 가장 크다고 확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투표에 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저는) 600조 넘는 정부 재정을 다뤘던 사람이다. 그 돈 쓰라고 하겠다. 그 돈의 100배, 1,000배, 10,000배 돈 벌어드리겠다. 북부발전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자”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서울메가시티에 대해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비판했다.

김 지사는 “메가시티는 서울을 줄이고 지방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충청권, 광주 호남권, 부울경, 대구와 경북처럼 서울 같은 지방을 여러 개 만들겠다는 것이 메가시티의 본래 의미”라며 “그런데 서울 일극화를 하고 서울 확장해서 서울 메가를 하겠다고 하니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힐 노릇이다. 거꾸로 하고 있다.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0년 가까이 대한민국이 끌어왔던 국토 발전에 대한 가장 상위 비전은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지방자치다. 김대중 대통령 이래 면면히 이어왔지만 소위 보수 정부



대통령도 다 똑같이 하신 말씀이다”면서 “서울 메가시티를 당분간 하겠다고 한 그날 (윤)대통령께서는 대선에서 균형발전과 자치에 대한 대회에서 지방시대를 주장했다.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지사는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

도가 정말 오랫동안 많은 준비를 해온 일이라며 “(서울메가시티는) 도대체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리 대한민국이 추진해 왔던 비전과 상관없이 특 튀어나왔고 그래서 얘기를 물어보면 나오는 답이 없다”고 비판한 후 “2008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서울에서 너무나 공약해서 속된 말로 엄청 선거에 재미보고 선거 끝나고 거의 유야무야됐다. 결국은 정치적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내부 직원도 고객’…“건강한 조직문화 조성해달라”

사업 전개 애써준 집행부에 “감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1일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업 전개를 위해 노력해준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과 출연·출자기관, 보조단체가 대한민국에서 모범을 보이는 사업들을 전개해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대다수 기관들이 노력해준 결과, 후진적 인사청탁, 채용비리, 계약위반 등 위반 행위가 확연히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각 기관 경영진을 향해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장관 및 규정 등을 재정비하고 ‘내부 직원도 고객’이라는 자세로 경영에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각 기관별 경영평가등급이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없지만,

평가를 보면 기관 내부의 움직임을 살필 수 있다”며 “직원들과 대화하고, 듣고 또 듣는 경영의 자세로 구성원을 대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 슬로건인 ‘변화의 중심기회의 경기’처럼, 각 조직이 긍정적인 기회를 위해 변화되고 있는지 되짚어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경기도 작은축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는 문화체육관광국의 실질적인 연찬을 통해 설립된 광역센터인 만큼 경기도가 타 광역지자체와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작은축제’는 코로나 단절 이후 모처럼 이웃과 함께하는 소중한 정책이었으나 집행부의 전역 예산 삭감으로 도민들의 애환을 차갑게 외면했다”며 “경기도 작은축제 지원 조례 발의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도민의 웃음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할 때 됐다”

수원시,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증가 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 개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가 21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연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증가 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40여 년 전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는데, 세 나라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했다”며 “우리나라도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수원 소재 기업가, 규제 전문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이재준 수원시장의 인사말,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발표, 수원 델타플렉스 입주 기업인의 사례발표, 전문가 토론회로 이어졌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증가 폐지 필요성 및 대응’을 주제로 발제한 김갑성 교수는 “과밀억제권역 중



과세를 폐지하면 저성장 기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마련할 수 있다”며 “4차산업혁명시대 세계경제 패권 다툼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고급인력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

권역 안 취득 등 증가)를 삭제하거나 법령은 유지하되 유효기간을 뒤 한시적으로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델타플렉스 2단지에서 자동차부품 관련 제조업을 하는 (주)명성이앤지 김정순 대표는 “회사에서 올해 신규아이템을 수주해 공장을 설립하려고 했

지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장을 설립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었다”며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증가 관련 목적에 맞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증축에 관한 사항은 배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토론회에는 이기영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장, 하능식 전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국토연구원 기획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기영 지방규제혁신과장은 “과밀억제권역 증가세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보다 수도권 내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은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능식 선임연구위원은 “과밀억제권역 증가세는 세수 비중이 매우 작아 (폐지로 인한) 세수 차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증가세 폐지로 해당지역 투자가 확대되면 오히려 세수 기반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범상/기자

성남시, ESG 정책자문단 11명 위촉

환경과 사회공헌, 투명 운영 중점... 시민 중심 ESG 도시 구축



성남시는 기업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ESG 경영 방식을 행정에 도입하기로 하고, 11월 21일 오전 11시 시청 4층 상황실에서 관련 정책자문단 11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이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투자 가치, 사회적 영향을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해 많은 기업이 환경과 사회공헌, 투명 운영에 중점을 둔 경영을 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경영방식을 정책 수립의 지표로 삼아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 중심의 ESG 도시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정책자문단은 양옥경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자

문단장)를 비롯한 환경, 복지, 경영, 사회공헌 분야의 교수, 기업대표, 연구원 등으로 꾸러졌다.

이들은 ‘ESG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시가 추진해야 할 사업을 제안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ESG 도시 추진 기본계획 수립, 세부 추진 과제 발굴, 시민의 ESG 실천 촉진 방안 마련, 행정 추진체계 구축에 관한 자문 활동에 주력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장은 “성남시의 미래를 이끌어가는데 자문단을 든든한 동반자로 삼아 위원분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오는 12월 5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시민 중심 ESG 도시 성남’ 비전 선포식을 연다. 김범상/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특례시 점점 팽창할 것...법적 지위·권한 규정해야”

21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 열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1월 21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 참가해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 등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고양, 수원, 용인, 창원 4개 특례시장과 담당 실·국·과장 및 담당자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특례시 권한 확보 및 특례사무 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의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특례시와 인구 감소 지역의 상생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4개 특례시장은 내년 총선 이후 변화될 국회의 상황에 따라 4개 특례시

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공감하고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실행계획에 속도를 낼 것을 다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대표회장으로서 “앞으로 특례시의 도시 규모는 점점 팽창할 것이다. 막대한 행정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특례시의 지위와 권한을 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라며 지방자치법 개정과 특례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도록 특례시장들의 긴밀한 협력과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상상이 현실이 되는 100만 화성의 새로운 출발

정명근 화성시장이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상상이 현실이 되는 100만 화성, 새로운 출발’을 주제로 시정브리핑을 실시했다.

정 시장은 시민들이 ‘화성에 살고 있음을 자랑스러워 하는 도시’를 만들 것을 밝히며,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즐길 것이 많은 도시로서 화성의 이미 시작된 미래를 제시했다.

먼저, 정 시장은 “내년 화성 동쪽의 GTX-A 수서구간 개통과 서쪽의 서해선 개통으로 제대로 된 철도시대가 화성시에 열리게 된다”며, “현재 진행중인 12개 철도노선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예방하이라인과 금융복지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의 하단을 끌어올리겠다”며, “전생

애복지정책을 실현시켜 아이부터 노인까지 시민들의 전생애를 책임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 시장은 “화성시는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3대산업이 공존하는 유일한 곳”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가 되어 자족도시를 넘어 글로벌 선도도시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즐기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타닉 가든 화성’과 ‘서해안 황금해안길’,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해 시를 넘어 대한민국, 글로벌 관광객들에게 강렬한 경험을 선사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정 시장은 “화성시의 100만 인구 달성은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며, “늘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며 옳은 방향을 찾아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광명시, 수도 동파 방지 대책 한발 앞서 추진

동파 예방 위해 배수지, 수도계량기 등 사전 안전 점검 실시

광명시가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하는 12월을 앞두고 한발 앞서 수도 동파 방지 및 복구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겨울철 동파 예방을 위해 시설물을 사전 점검하고, 긴급 복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오는 2월 말까지 수도 동파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12월 전까지 각종 수도 시설물과 장비, 자재를 사전 점검해 사고 발생 요인을 미리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배수지 내 배관 및 밸브의 보온 상태와 가압장 모터펌프를 비롯해, 교량 하천 등에 노출된 배관, 맨홀 주변 누수 및 침하 상태,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부 보온재, 노출된 옥외배관 보온 조치 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또 복구차량과 급수차, 양수기, 제수변 탐지기, 전기 해빙기, 스팀 해빙기 등 동파 복구 자재도 사전 점검을 통해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12월 1일부터는 동파·누수 복구 상황실과 복구대책반을 편성, 운영한다. 수도과 내 누수복구센터를 통

해 상황을 유지하며, 복구대책반은 비상 급수조, 계량기 점검조, 비상 지원조, 누수 복구조 등 4개 조 26명으로 편성된다.

시민들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시 및 부서 홈페이지, 시청소식지, 트위터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해 동파 예방 요령을 홍보하는 한편, 동파 예방 리플릿과 안내문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반사회를 통해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량기 동파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동파방지팩도 배부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수도 동파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 처리할 수 있는 복구 체계를 마련했다”며 “겨울에도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관내 계량기 동파는 36건이 발생한 바 있다. 월별로는 1월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윤용민/기자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함께 이루는 진로 멘토링’ 성과평가회 개최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은 지난 18일

평촌 파티엘하우스에서 ‘함께 이루는

진로 멘토링’ 성과평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이루는 진로 멘토링은 안양의 유능한 인력을 활용해 교내 소외계층 및 진로 미결정 학생을 위한 진로 멘토링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3년 연속 경기도교육청 공모에 선정돼 운영해왔다.

지난 5월 총 20시간의 멘토 양성 교육을 이수한 20명의 멘토는 6월에 개최한 발대식에서 30명의 멘티와 결연식을 가졌다. 이후 6개월간 15회에 걸쳐 1:1 맞춤형 진로 멘토링을 진행했고, 8월에는 멘토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및 멘토링 보안을 위한 슈퍼

비전 컨설팅 교육도 시행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2023년 진로 멘토링 운영 성과 보고와 대표 우수사례 및 소감 발표가 이뤄졌다. 또 멘토들은 멘토링을 진행하며 멘티의 진로 설계에 관해 함께 고민했던 과정 및 이를 통해 느낀 점을 공유하고, 2024년 멘토링 운영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단 최대호 이사장은 “함께 이루는 진로 멘토링을 활용한 진로상담 전문 지원 체계를 구축해 안양시의 많은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우용/기자



의정부시 보건소, 65세 이상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실시

의정부시 보건소는 폐렴구균 접종률이 없는 65세 이상 시민(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폐렴은 세균·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후 기관지와 폐에 염증이 생기는 호흡기 질환이다.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은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나 폐렴구균 1회 예방접종만으로도 패혈증, 뇌수막염 등 심각한 합병증을 50~80%까지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독감 및 코로나19 합병증에 대한 예방 효과도 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65세 이상 시민은 신분증 지참 시 관내 136개의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

종받을 수 있다. 다만, 방문 당일 해당 의료기관에 유선으로 백신 재고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은 시 보건소 홈페이지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31-870-6078~9)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장영국 소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겨울인 만큼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폐렴·독감·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수"라며, "더불어 철저한 손 씻기와 호흡기 증상 발현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생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최고령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으세요!

사입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중 23가 다량 백신(PPSV23)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

지원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량 백신(PPSV23), 1회 지원

접종기관 지정 의료기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의료접종센터에서 확인 가능

의료기관 방문 시 예방접종 행동 수칙

- 진료실로 입장할 때 마스크 착용
- 방문객의 온도측정 및 손소독
- 접종실로 입장할 때 마스크 착용
- 접종 후 30분 이상 대기
- 접종 후 30분 이상 대기

여주시 청년활동지원센터, '따끈따끈! 청센베이커리' 프로그램 진행 청센에서 즐기는 따뜻한 베이킹 클래스



따끈따끈!! '청센 베이커리'

모집기간 2023. 11. 22.(수) 13:00 ~ 12. 1.(금) 21:00

모집대상 18세 ~ 39세 여주시 청년 *중복접수 불가

접수방법 네이버 예약 or 포스터 상단 QR 접속

<오전반 - 11명>	<오후반 - 10명>
2023. 12. 2.(토) 10:00 ~ 12:00	2023. 12. 2.(토) 14:00 ~ 16:00
 <p>마카롱 필링 샌딩 + 데코 & 초코 구겔호프 아이싱 + 데코</p>	 <p>쌀 버터쿠키 아이싱 & 단호박 쌀케이크 샌딩 + 데코</p>

*센터 지정상 화기를 다루지는 못하여 준비된 재료에 데코와 아이싱만 진행되는 점 꼭 부탁드립니다.

여주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오는 12월, 여주시 청년들을 위한 '따끈따끈! 청센 베이커리(이하 청센 베이커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센 베이커리' 프로그램은 여주 청년들의 다양한 취미 및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스마카롱 및 구겔호프 제작(11명) △ 쌀케이크 및 아이싱쿠키제작(10명) 등의 주제로 진행되며 베이킹 클래스 개설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베이커리 작품을 직접 만들

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본 프로그램은 11월 22일부터 18세 ~ 39세 이하 여주시 청년을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을 진행하며 신청은 네이버 예약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여주시 청년활동지원센터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청년들의 꾸준한 요청으로 베이킹 클래스를 진행하게 된 만큼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베이커리에 대해 배우며 따뜻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가 인구 감소 지역 시·군을 적극 돕자"

21일 특례시장협의회 제2회 정기회의서 강조...인구감소 지역과 협약 추진



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협력해 지역 상생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특례시장들은 또 지난 7월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에도 불구하고 특례사

무양 심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례시가 지난달 13일 '지방시대 위원회'에 57건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만큼 이에 대한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

기로 한 것이다.

4개 특례시가 행정 권한 확보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전신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이양을 요구한 86개 기능 사무 가운데 6건만이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법제화됐다.

이와 관련 특례시장들은 오는 23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달라고 주문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역 불균형 심화로 지방의 일부 도시는 공동화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특례시가 지방 시·군의 발전을 돕는 등 상생하는 노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최근 행안부 장관실에 특례시의 5급 간부 교육 TO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선 내년 총선 이후 새 국회가 출범하면 새롭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사이 특례시 차원에서 보안 내용을 보완하고, 법 제정 이전에 개별적인 권한을 확보하는 노력도 지속해 전개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범상/기자

[기획보도] 안산시-경찰-소방, 일상 안전·범죄 대응에 머리 맞대... CCTV 확충도

안산시가 관내 경찰과 소방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일사천리' 회의를 출범했다. 안산에서 도입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을 공고히 추진하고 민생안전도시 구축과 관련된 현안을 발 빠르게 논의하기 위해서다.

어떤 일이 거침없이 빨리 진행됨을 이르는 '일사천리(一瀉千里)'는 민생 안전에 있어서 만큼은 민·관·경·지자체가 합심해 빠르게 대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1일 오전 안산단원·상록경찰서장, 안산소방서장 등 각 대표 기관장이 참여하는 '제1회 일사천리 민생안전회의'를 개최하고 안산형 시민안전모델 추진 사항과 민생안전 전반에 관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이민근 시장과 위동섭 안산단원경찰서장, 이민수 상록경찰서장, 이제철 안산소방서장 등 관계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5대 범죄 '14.2%' 감소, 수치로 증명 앞서 안산시는 지난 8월 잇따른 이상 동계 범죄 발생에 따라 경찰력만의 활동으로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와 적극적인 연대·협력을 기반으로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홍기현)과 함께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을 전국 최초로 출범했다.

이는 지역사회와 함께 치안 행정력을 집중·강화해 지역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물론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발생 시 지원 가능한 연계 부서까지 즉시 투입돼 적극적으로 신속한 피해 보호 대책을 실시하는 게 핵심 골자다.

출범 이후 여러 차례 각 지하철역 주변, 원곡동 다문화특구 등에 걸쳐 합동 순찰을 진행하며 관련 범죄를 원천 차단



함으로써 시민들의 우려를 덜고 있다는 게 안팎에 평가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안산 터미널역에서 경찰·소방 인력과 합동 훈련을 진행해 실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도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 이날 출범한 일사천리 민생안전 회의는 안산형 범죄예방 전략을 위한 민·관·경·지합동 훈련을 진행해 실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형 시민안전 모델의 경기남부청 전 지자체 확대 및 5대 범죄율 감소 등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민·관·경·소방 각 주체 간 긴밀한 협조와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며 "안산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민안전모델을 선도하는 민생안전도시를 목표로 한치의 소홀함 없이 행정력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동섭 안산단원경찰서장은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이 민·관·경 협력 치안의 성공적 플랫폼으로 정착되고 경기남부 지자체 전체 시행에 선도적 역할을 주도한 만큼 범죄로부터 안전한 안산시를 만들기 위해 민·관·경·지합동체 등과 힘을 모아 공동체 치안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수 안산상록경찰서장은 "범죄율 감소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된 만큼 안산시, 소방서, 자율방범대 등 민관협력 단체와 협업을 더욱 강화해 범죄 없는 안전한 안산시를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정부/기자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환경프로그램 '지구방위대 덕풍수비대' 진행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4회에 걸쳐 총 56명의 청소년이 참여한 청소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지구방위대 덕풍수비대'를 실시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공포(2023.6.9.)에 따라,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탄소중립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직접 견학·체험함으로써 전 지구적 문제인 탄소중립 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시민의식 향상을 목표로 했다.

덕풍수비대는 청소년들에게 쓰레기에 관련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쓰레기가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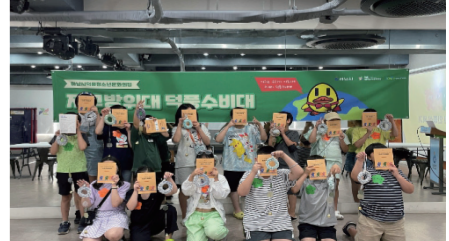
기는 이유, 환경을 위한 5R 운동 살펴보기, 지구지킴이 선언문 작성하기 등 참여형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우리 지역의 내가 버리는 쓰레기가 어떻게 배출되고 처리가 되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하남시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친화적이고 첨단 기술이 적용된 유니온타워 환경기초처리시설을 견학하여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를 견학하여 업사이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 체험활동(양말

목 도어벨 만들기, 커피파키 만들기, 페트병 진공청소기 만들기)을 통해 직접 환경 보호를 실천했다.

덕풍수비대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탄소중립에 대한 막연하고 어려워 보이던 용어와 이미지가 실제 체험을 통해 일상에서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바뀌게 됐고 친구들과 함께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 정재우 관장은 "대한민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



국(1993년 가입)이며 2050년까지 NET ZERO(탄소배출량 제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 정부의 핵심 정책인 탄소중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들이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토론하며 문제해결하기 위한 체험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참여 청소년의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범상/기자

목포시, 관광 캐릭터 '목포랑' 이모티콘 무료 배포

23일 오후 2시부터 카카오톡 이모티콘 16종 무료 배포..선착순 2만5,000명

목포시는 관광브랜드 캐릭터인 '목포랑'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2만 5,000명에게 선착순 무료 배포한다. 이모티콘은 올해 개발한 목포시 관광브랜드 캐릭터 '목포랑' 디자인을 활용해서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들이 일상에서 친근하게 사용하는 동작 16종으로 구성했다.

이모티콘 배포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 검색창에 '목포시청'을 입력해 친구를 추가하면 되고, 사용기간은 다운로드 이후 30일이다.

이번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포는 지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기념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을 모아 응원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좌식 배구 경기 영상이 목포시 인스타그램에 올린 지 10일 만에 조회수 백만 회를 돌파하고 7천명 이상의 '좋아요' 기록하는 등 전국체전에 대한 시민들의 성원에 대한 보답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일상에서 이모티콘을 활용해 즐거움을 얻고, 목포시를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 블로그 총 5개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운영해 축제, 행사 등 각종 시정 소식을 전달하며, 시민과의 소통 행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종배/기자



순천시, '순천 청년 독서모임', '원데이 독서모임' 참여자 모집

순천 청년 독서모임
: 난데없이 도스토옙스키

2023. 12.8. - 12.15.
매주 금 10시 30분

수해전시작은도서관
(순천시 우석길 17)

12.8.(금) ⊕ <난데없이 도스토옙스키> 독서토론
12.15.(금) ⊕ 도제희 작가와의 만남
(방구역 일기도 예매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자

신청기간 | 2023. 11. 22. ~ 12. 1.
신청대상 | 순천시에 거주하는 청년(20~39세)
신청방법 | 구글폼
(<https://forms.gle/odKEH5a29UpU9gBA>)

순천시가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순천 청년 독서모임' '난데없이 도스토옙스키'와 '원데이 독서모임'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 독서모임은 순천시 청년정책과에서 추진한 '천(天)개의 아이디어'에서 제안된 청년 정책 아이디어를 반영했다.

시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청년(20세~39세) 10명을 대상으로, 수해전시작은도서관(순천시 우석길 17)에서 12월 8일과 15일 양일간 독서모임을 운영한다.

12월 8일은 정지선 강사가 도제희 작가의 '난데없이 도스토옙스키'를 주제로 비경쟁 독서토론을 진행한다. 12월 15일은 '난데없이 도스토옙스키'의 저자인 도제희 작가를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누는 작가 북토크를 운영한다.

참여 신청은 구글폼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청년이 아니라도 참여할 수 있는 원데이 독서모임을 순천 조례호수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원데이 독서모임은 1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운영되며, 주제 도서는 11월 카카오톡(讀) 도서인 '투명인간', '마담 보바리', '초역 니체의 말' 세 권이다.

전문 진행자가 있어 토론 입문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위 책을 읽은 순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세 권의 도서 중 1권을 선택하여 구글폼을 통해 접수를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모임을 통해 청년뿐 아니라 순천 시민이 독서의 즐거움을 알고 책을 통해 사람들간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승준/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주호 부총리와 교육과제 현장 소통 강화

글로벌대학·교육발전특구 등 논의...교육부의 관심과 지원 당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대학과 교육발전특구 등 중앙과 지역의 협력이 필요한 교육개혁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지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이병운 순천대 총장,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교육 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대학과 산업체의 지속적인 협력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전남도는 이날 국립순천대학교의 글로벌대학 분지정에 따른 라이즈 체계의 선도 대학 육성 방안을 설명하고,

국립 의과대학 전남도 신설, 유보통합 지방재정확보 방안 마련, 고교 무상교육 지자체 분담비율 개선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13일 순천대가 글로벌대학30에 선정돼 지역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 육성 기반이 마련된 것에 교육부에 감사드린다"며 "지방정부가 주도해 인재 양성부터 취·창업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도록 힘이 되는 교육부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육과 정주여건 격차 확대로 지방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 심화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



고 있으며 11월 말 '시범운영 기본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전남도교육청, 시군,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남형 교육발전 모델'을 마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 되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교육과제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전남을 방문해 글로벌대학 간담회,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나주 혁신도시 교육 현장 방문 등으로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박종배/기자

구례군, '2023년 청소년 해외 유적지 탐방' 실시



전남 구례군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7박8일 동안 관내 중학생 20명과 함께 중국 해외 유적지 탐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탐방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됐다가 올해부터 재개됐다. 군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성적 우수자와 저소득층 등 20명을 선발하여 탐방에 참여하게 했다.

참가 학생들은 중국 동북 3성 내 길림성과 흑룡강성 내 집안, 용정, 하얼빈 등을 탐방하며 고구려부터 근대 항일 운동 시기까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선조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었다.

김성현/기자

보성군, 소 럼피스킨 고병원성 AI 대비 통합 방역 관리 추진

보성군은 소 럼피스킨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재난형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한 통합 방역 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 럼피스킨병은 지난 10월 20일 충남 서산에서 국내 처음 발생했다. 지난 11월 20일 기준 현재까지 전남 2건(무안군, 신안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06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 고병원성 AI 등 다른 가축전염병 발생확률도 높아지므로 꼼꼼한 방역이 필요한 실정이다.

보성군은 빈틈없는 방역 관리를 위해 지난 10월 23일부로 분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

방역대책본부, 특별소독반 편성... 소 농장 차단 방역 강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1월 5일을 기점으로 관내 한우 및 젖소 전 두수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을 마쳤으며 항체가 형성되는 3주 후인 11월 26일부터 전 두수에 대한 항체형성을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현재 7명의 공수의로 이뤄진 럼피스킨 예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축협 공동방제단 등 가용한 모든 소독자원을 동원해 축산시설 및 농장에 대한 전면적인 소독을 실

시하고 있다.

읍·면별로는 특별 소독반을 편성해 소 사육 농가 주변의 물웅덩이를 비롯한 기타 취약 지역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소 사육 농가에는 생석회와 소독약, 흡혈 곤충 방제약 등을 공급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는 항체형성이 완료되는 11월 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좀 더 방역에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럼피스킨과 고병원성 AI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영/기자

최 시장의 노력이 수치화되어 나타난 결과로 남원의 성장잠재력 인정받아

남원시가 21일 충남 금산군 '다락원'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지방성장대상' 시상식에서 '지역성장역량 대상'에 선정돼 최경식 시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시에 따르면 본 상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창간 20주년을 맞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연구진으로 참여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생존전략 측정 지표를 개발해 제정한 상으로 뉴스핌 등 3개 기관은 이 지표를 토대로 심의해 6개 부문에서 12개 시·군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남원시는 지역 성장잠재력 지표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전라북도 내에서는 최경식 남원시장이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문별 자치단체는 총 12개로 '대한민국 지역소멸 종합대상'에 경북 영천시와 강원도 양양군, '대한민국 지역경제역량 대상'에 경북 안동시와 강원도 영월군, '대한민국 지역활력역량 대상'에 충북 제천시와 전남 담양군이 선정됐고 '대한민국 지역교육혁신역량 대상'에 충남 보령시와 경남 하동군이 수상했으며, '대한민국 지역성장역량 대상'에 전북 남원시와 충남 금산군이 그리고 '대한민국 살고 싶은 지역 대상'에 충북 진천군

최경식 남원시장, '지역성장역량 대상' 수상



와 전남 강진군이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22년 인구수 기준, 행안부가 선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을 포함한 총 141개 시군(전국의 기초단체 중 수도권과 인구 50만명 이상 시 지역을 제외)을 대상으로 명지대학교 임승빈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채지민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민 교수의 심사를 통해 선정됐으며, 교수진의 연구를 통한 개발 지표로 인구학적, 사회학적, 경제학적인 다양한 자료가 고려된 자치단체 평가로 의미가 있다.

연구진에서 제시한 역량지표는 크게 도시경제력 역량지표(1인당 GRDP 상

용직 비중, 국가행정기관 시설 수 비중, 창의 인재 수 비중, 2, 3차산업 비중, 사업체당 종사자 수 비중, 운수업 사업체당 종사자 수 비중 등 12가지 지표), 생활 활력 역량지표(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자 수 비중,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비중, 미충족 의료율 등 14가지 지표), 교육혁신 역량지표(유치원 교원 수 비중, 초등학교 교원 수 비중, 보육 정책의 기초자료인 원아 수 대비 유치원 수 비중, 초등학교 수 대비 초등학교 수 비중 등 7가지 지표) 총 3가지다.

이 같은 지표 아래 남원시는 지역 경제

력 및 생활 활력 역량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잠재력 측면에서 지역 경제력 역량이 0.9% 증가했고, 생활 활력 역량 또한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잠재력이 있는 지역으로 분석됐으며, 또 2017년 인구수 83,275명에서 77,948명으로 지속적 감소가 나타나는 가운데에서도 경제성장 및 생활 기반 시설의 지속적 투자 정책을 펼쳐 향후 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지방성장역량 대상' 수상은 최 시장의 이 같은 노력이 일궈낸 가시적인 결과로 민선 8기 최 시장이 '시민소통위원회' 발족 후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행안부 및 전북도와 건밀한 소통으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덕분에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국가예산 확보 일정으로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못해 아쉽지만, 생각하지 못한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 오직 남원시민만을 생각하며 뛰어난 지난 1년 5개월의 노력이 이렇게 가시화돼 대단히 감사하다"면서 "많은 잠재력을 가진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한 덕분이다. 앞으로도 우리 남원시 가진 잠재력이 분출돼 시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남출/기자

전북, 3년 연속 행안부 우수 청년공동체 선정 쾌거!

전북 청년공동체 3년 연속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으로 도내 청년단체의 성장가능성 및 우수성 입증

전북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난 20일 행안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3년 청년공동체 최종 성과공유회'에서 완주 '막동막순협동조합'이 우수 청년공동체로 선정돼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전국 170개 팀 중 각 시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추천된 16개 팀이 참석해 그간 활동성과를 발표하고, 심사위원의 평가를 통해 우수 청년공동체를 선정했다.

전북에서는 '21년 무주 '산골낭만', '22년 장수 '장수러닝크루'에 이어 올해는 완주 '막동막순협동조합'이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3년연속 행안부 우수 청년공동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막동막순협동조합'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전통주를 개발해 타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숙박형 체험 프로그램을



을 기획 운영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역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생활 인구조로 확장시키는 등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공

동체로서의 성장을 위해 자체 청년 네트워크 동아리 '고봉밥'을 조직하는 등 프로그램을 통해 연결된 청년들과 지역이 지속적으로 유대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전은경 '막동막순협동조합' 대표는 "각지 청년들이 지역에서 함께 자립하고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모여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서로 성장하고, 지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청년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상 전북도 청년정책과장은 "'막동막순협동조합'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한 축이자 동력인 청년들이 전북의 미래 활력 주체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공동체를 발굴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해 청년들의 지역활동 기반을 돕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해 전북에서는 15개 공동체가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남술/기자

황금빛 완도 유자 수확 한창, 올해 2,700톤 생산

해풍 맞고 자라 과피 두껍고 새콤한 맛, 부드러운 향 일품



완도군 고금면에서는 유자 수확이 한창이다. 유자 수확은 12월 초까지 하며, 올해 예상 수확량은 2,700톤이다. 고금면은 유자 주산지로 유자 재배 면적은 205ha로 전국 재배 면적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고금 유자 가격은 10kg당 일반 유자는 70,000원, 무농약 유자는 90,000원, 유기농 유자는 120,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완도 유자는 풍부한 일조량, 해풍을 맞고 자라 다른 지역 유자보다 과피가 두껍고, 새콤한 맛과 부드러운 향이 일품이다. 유자는 레몬보다 비타민C가 3배 이상

들어 있어 감기 예방과 피부 미용에 좋다. 피로를 방지하는 유기산도 다량 함유하고 있다. 껍질에 들어 있는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 '헤스페리딘'은 혈액 순환 촉진, 뇌혈관 질환 예방, 고혈압 예방 등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준다. 유자의 영양분을 온전히 섭취하려면 껍질이 포함된 유자청이나 쉐이드 소스를 만들어 먹는 것이 좋다.

이복선 완도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우수 농산물 관리 제도(GAP) 인증을 확대하여 완도 유자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양영율/기자

이상의 함평군수 2024년 시정연설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성과의 열매 맺을 것"



이상의 함평군수가 21일 열린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올 한해 주요 성과와 2024년 군정 운영방향을 밝혔다.

이 군수는 "국내·외적으로 불안정한 경제와 경기침체를 비롯해 대형산불 및 폭우로 인한 인명사고 등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군민과 행정이 하나돼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더 높은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2023년 주요 성과로는 ▲전라남도와 함께하는 1조 7천원 규모의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180억원 등 10여 개 사업 417억원의 국도비 확보 ▲지역소멸대응기금 80억원 확보 등을 꼽았다.

이 군수는 2024년에는 민선8기 주요사업 추진 성과의 열매를 키워나갈 것을 강조하며, 2024년 5대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 군수가 제시한 내년 군정 운영

방향은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첨단산업도시 건설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도약 ▲미래 농축산업 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빈틈없는 복지 실현 ▲도심 재정비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등 함평의 미래 발전에 큰 중점을 뒀다.

특히,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지방 재원이 대폭 감소되는 상황에서 이 군수를 비롯한 함평군 공직자들이 국·도비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2년 연속 본예산 5천억 시대를 이어가게 됐다.

이를 통해 함평군은 다가오는 2024년에는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을 위한 뚜렷하고 유의미한 많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내년에는 올해 보다 더욱 밝은 미래와 희망을 꿈꾸며 군민들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함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진도군, 제11회 장애인 한마음 축제 성황리 개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개선...동행과 화합 강조

진도군이 제11회 장애인 한마음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19년 개최 이후 4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행사에 장애인과 그 가족,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가 주최하고 진도군과 각 장애인 단체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복지 유공자 표창 ▲축사 ▲오찬 ▲초청가수 공연 ▲어울림장기자랑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재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

지회장은 "비록 몸이 불편해 행동이 조금 더디지만 꿈과 희망을 갖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도전해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회의 인원이 될 수 있게 장애인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홍섭 진도군 부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차별 없고 서로 화합하는 진도군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며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진/기자



나주시, 내년도 나주밥상 지정업소 12월 8일까지 공개모집

'건강·안심·배려' 3대 실천 서약, 나주밥상 브랜드화 동참 업소

전라남도 나주시의 음식관광 브랜드인 '나주밥상'이 내년에 더 다채롭고 풍성해진다.

나주시는 먹거리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2024년도 '나주밥상 지정업소'를 12월 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나주밥상 지정업소는 음식 맛, 위생, 서비스, 가격 등이 우수하고 '건강·안심·배려' 3대 실천 서약을 통한 지역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서는 관내 외식업소다.

시는 올해 2월 첫 공모 이후 심사·심의 절차를 통해 외식업소 22곳을 1차

나주밥상 지정업소로 선정할 바 있다. 지정업소엔 나주밥상 지정표지판, 음식문화 개선 물품과 청결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컨설팅 및 경영 마인드, 서비스교육, SNS홍보 등을 지원했다.

또 올해 나주밥상 지정업소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자문회의, 분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평가 기준, 방식 등을 개선했다.

시는 오는 23일 오후 3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나주밥상 지정업소 모집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나주밥상 지정업소 신청 대상은 공고일(11월 20일) 기준 나주시에 영업신

고 후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중 식사 취급 업소다.

음식의 맛, 위생, 서비스, 가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1차 결격사유, 가·감점 평가, 2차 현장 및 소비자평가, 3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신청 자격 및 서류, 선정절차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나주밥상 지정업소 모집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외는 나주시 먹거리계획과 나주음식문화팀에서 받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2026년까지



나주밥상 브랜드 음식점 100곳을 지정해 관광 핵심 요소인 먹거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맛과 건강이 조화로운 나주 음식문화 우수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안/기자

구북규 화순군수, 중단없는 변화·도약 위한 의회 협조 요청



구북규 화순군수가 20일 화순군의회 시정 연설을 통해 "중단없는 변화와 도약을 위해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구북규 군수는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 연설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 만연 임대주택, 전국 최초 다문화가족

연해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 및 관광객 500만 시대 조기 실현,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잘 사는 부자 농촌 구축, 바이오·백신 선도 도시로서 백신주권 확보 및 인력양성, 화순형 인구정책으로 지방소멸 위기 돌파, 지역경제 회복과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총력, 사회적 약자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정책,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신뢰 행정 구현 등 7대 기조를 밝혔다.

이러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632억 원으로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불요·불급한 예산 최소화해 방점을 두었다고 밝히며, 군정 전 분야에서 고통을 함께 분담하면서 민선 8기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지속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780명의 공직자는 오직 군민만을 위한 마음으로 군민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매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윤경호/기자

구북규 화순군수 -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

강진군, 중소기업 인식개선 탐방 프로그램 운영

전남생명과학고 졸업예정자 대상, 취업지원 교육



강진군이 지난 17일 전남생명과학고 3학년 졸업예정자 91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탐방에 참여한 기업은 강진군 칠량면에 있는 '뷰티팜'이었다. 뷰티팜은 작약

육과 기업탐방으로 이뤄진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취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면접, 이력서 컨설팅과 사회 초년생인 학생들을 위한 직장예절교육 등으로 이뤄졌으며, 오후에는 기업을 직접 방문해 탐방을 진행했다. 기업 탐방을 통해 학생들의 관내 중소기업의 인지도와 취업 선호도를 향상시키고 원스톱 프로그램을 제공해 기업의 인력 공급과 학생들의 지속적인 지역 정착의 기반 마련을 기대하기 위해 운영했다.

전문강사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제공받은 학생들과 해당 학교 교직원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취업을 위한 첫걸음을 떼는 경험을 하게 된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말했다.

임성수 강진군 인구정책과장은 "중소기업 인식개선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취업을 통한 지역 정착의 기반이 될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추윤호/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 24년 예산시정연설, 미래와 경제 집중

내년도 예산안 도의회 시정연설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예산' 편성

이철우 도지사는 21일 "24년 경상북도의 예산은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경상북도 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서민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지방시대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면서도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도 유지해야 하는 중용(中庸)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재와 창의라는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대학과 신규국가산단 그리고 특화단지 육성에 대한 투자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산업 18회 ▲투자 12회 ▲대학 11회 ▲인재 10회 ▲경제는 8회를 언급하면서, "첨단산업이 꽃피는 곳에는 훌륭한 대학이 있고, 훌륭한 대학이 있으면 인재가 모여들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올해 신규국가산단 후보지 3곳으로 전국 최대, 안동대와 도립대 그리고 포항공대가 선정된 글로벌 대학 전국 최



다 등의 성과에 대한 자신감과 민선8기 출범 때부터 강조한 인재양성과 4차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내년 예산에 라이즈(RISE)사업과 글로벌 대학 육성 그리고 10년간 2만 명을 목표로 하는 반도체 인력양성 목

표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권한 10회, 지방정부 7회를 언급하며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해 지역의 주인들이 스스로 힘으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보다 작은 싱가포르 국가로서 권한을 가지고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가 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규제를 8회나 언급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최근 포항의 불리밸리산업단지 업종규제 완화와 영천 경마공원 지방세 감면 총량 확대 등 지역규제완화의 성과와 내년도 규제완화로 지역의 산업단지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풀이된다.

농업도 5회나 언급하면서 경상북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의 첨단산업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철우 지사는 마지막으로 "권한을 주어야 능력도 생긴다"면서 "지방으로 제대로 된 권한과 재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한국자유총연맹 온천1동 위원회, 사랑 나눔 무료급식 행사 개최



부산동래구 한국자유총연맹 온천1동 위원회(위원장 배용수)는 지난 20일 관내 저소득 어르신 150여명에게 사랑의 무료급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자유총연맹 온천1동위원들은 정성을 담은 반찬 및 소고기국밥을 대접하고 식사 후 어르신들에게 땀셔드도 선물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마음을 전달했다.

배용수 한국자유총연맹 온천1동위원장은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야주

작은 점심 대접에도 많은 고마움을 느껴서 송구스러우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지속적인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온천1동 김혜진 동장은 "추운 겨울에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자유총연맹 온천1동 위원회에 감사드리며, 동에서도 어르신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안동시, 걷기 좋은 길 '맨발로' 조성

안동시, 국내외 열풍 걷기 좋은 길 '맨발로' 150m 시범 조성과 내년에는 낙동강 낙동강 양안에 5.3km '맨발로 길' 본격 조성해 새로운 산책 명소로 조성할 계획

권기창 안동시장, "제2의 심장인 발로 땅 기운을 느껴 건강 증진에 도움 되길" "내년, 대규모 길 구축, 범시민 맨발 걷기 활성화, 전국 맨발족의 나들이 장소로 즐겨찾는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조성에 최선 다하겠다"고 밝혀



안동시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걷기 좋은 길 '맨발로'를 시범 조성했다. 시는 올해 11월 성희여고 앞 강변 둔치에



150m 길이로 레드일라이트 길을 조성했고, 내년에는 낙동강 양안 5.3km에 걸쳐 맨발 길을 조성해 시민 체력과 여가 증진을 위한 새로운 산책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 맨발로 자연을 느끼며 운동하는 맨발 걷기가 세계적으로 열풍을 끌고 있다. 특히, '어싱족(Earthing족: 맨발 걷기를 뜻하는 'Earthing'과 집단을 뜻하는 족(族)의 합성어)'이란 단어도 생겨날 만큼 워라벨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참여와 체험도 늘고 있다.

맨발 걷기는 치매예방과 기억력향상, 혈액순환과 고지혈증 개선, 고혈압과 당뇨 완화, 불면증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땅과 몸을 연결하는 '접지'행위만으로 만성통증, 스트레스, 염증으로 인한 노화 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최근 성희여고 앞 강변둔치(정하동 635번지 일원)에 150m 길이

(폭 2m)로 레드일라이트가 깔린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여기에 쓰인 레드일라이트는 10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미세입자를 함유하는 친환경 천연광물이다.

내년까지 5억5천만 원을 투입해 지압포장, 감로배포장, 레드일라이트포장 등 2km 노선으로 확장하고 더욱 다양한 체험형 산책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낙동강변 양안 둔치 5.3km에 이르는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한다. 낙동강 북단으로는 낙천보에서 태화동 어가골 앞까지, 남단으로는 동천보에서 안동철교까지이다. 여기에는 지압포도, 마사토길, 모래길, 레드일라이트길 및 세족장 등이 함께 조성된다.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내년 초 설계와 함께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걷기 좋은 길 '맨발로'사업으로 내년 5.3km 구간이 준공되면 안동시민 건강증진은 물론 전국 나들이객들의 관광 걷기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발로 땅의 기운을 마음껏 느끼며 건강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내년에는 대규모 길을 새롭게 구축해 범시민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고 전국의 맨발족들이 나들이 장소로 즐겨찾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대구시 실국장급 이상 고위직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대구광역시 11월 21일 오후 2시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훈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실·국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정아 변호사를 초빙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훈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다"고 강조하며,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직원들이 서로 존중하며,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제20회 대한민국 향토식문화대전 금상 수상 쾌거

청송군은 '주왕산상가번영회 대표메뉴 개발분과 팀'에서 최근 제20회 대한민국 향토식문화대전 전시요리경연 단체부문에 참가해 서울특별시장상 및 (사)세계음식문화연구원에서 수여하는 금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사)세계음식문화연구원 및 (사)한국푸드코디네이터협회 주최로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렸다. 개인과 단체부문으로 나눠 펼쳐진 경연대회에서 청송군 주왕산상가번영회팀은 전시요리경연 단체부문에 참가해 전국에서 참여한 10개 팀과 경연을 펼쳐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청송군 주왕산

상가번영회팀은 작년 7월 선정된 행정안전부 골목경제 회복지원 공모사업 참여업소로 구성됐으며, 주왕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먹거리로 개발한 음식인 '사과색비빔밥', '사과커피공방', '사과향 청국장 한상차림', '주왕담곰탕' 등을 출품하여 주왕산의 새로운 음식문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다시 찾고 싶은 관광청송을 위해 다양한 먹거리 개발에 노력한 것이 수상으로 이어진 것 같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인 주왕산의 골목상권과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영양군은 16일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품목을 선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11월21일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답례품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답례품 모집분야는 ▲고춧가루▲전통주▲장류▲사과▲소고기▲꿀▲농산물발효액▲건나물▲장아찌류▲버섯류의 10개 품목이다.

공모 업체는 영양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로서 답례품으로 선정된 품목을 생산·제조 또는 공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하며, 현재 국제·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중인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영양군청 재무과통합징수팀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답례품 품목을 확대

하여 기부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지역의 특색을 담은 상품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우수한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여 지역경제발전과 더불어 기부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답례품이 선정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지증진 사업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과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지역 농특산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 e음'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 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제1회 의성군수배 전국컬링대회 개최식 개최

대한민국 컬링 선수 총 출동

의성군은 제1회 의성군수배 전국컬링대회가 20일 컬링의 성지 의성에서 화려하고 감동적인 개최식을 가진 후 14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개회식은 청소년센터 대강당에서 김주수 의성군수, 한상호 대한컬링연맹 회장, 컬링팀 선수단과 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의성군수배 컬링대회 개최식이 성대하게 개최됐다.

개회식은 신봉기 대회 추진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공식행사의 시작을 알렸고, 선수단(남자 5팀, 여자 6팀) 소개로

진행됐다. 개회식이 끝난 후에는 선수단이 함께 만찬을 즐기며 잠시나마 경쟁에서 벗어나 화합의 장을 즐겼다.

이번 대회는 해외전지훈련 중인 강원도청 팀을 제외한 모든 팀이 참가하여 대회를 더욱 빛냈다. 아울러, 올해 창단된 의성군 남자컬링팀과 여자컬링팀 홈팀 이점을 살려 금빛 사냥에 나선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대회를 통해 "이번 대회를 통해 더욱 성장하여 국제무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시길 바란다"라며 "의성군은 대회기간동안 선수단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빙질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강조했다.

정금자/기자



금정구 부곡2동, 치매 예방 프로그램

'봉디미 기억력 검사의 날' 실시

부산 금정구 부곡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준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봉디미 기억력 검사의 날'을 실시했다.

'봉디미 기억력 검사의 날'은 동 간호직 공무원과 금정구 치매안심센터가 협력하여 인지선별검사(CIST), 치매 진단·감별검사, 혈압·혈당 측정, 손가

락 악력 운동 교육 등 치매 예방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김준규 위원장은 "보건소까지 찾아가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아 만족도가 높았다"라며, "내년에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경북도, 이웃끼리 수돗물 나눠 쓰고 통합 운영해 특별교부세 확보

안동시 급수구역 확장 3억, 울진군 소규모급수시설 통합관리에 4억 확보

경북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상수도 경영효율화 우수공모사업'에 최종 2개 시군이 선정되어 총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상수도 경영효율화 우수사업'은 상수도 시설을 공동이용을 통해 재정을 건전화하고 소규모수도시설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질관리를 개선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올해는 특별교부세 지원 총액이 40억으로 전국 36개 시군 40개 사업이 공모에 참여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 후 외부전문가 검토를 거쳐 안동시와 울진군을 포함한 11개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안동시는 인접 지자체인 영주시와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 상호공급 협약'을 체결해 안동 상수도를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에 공급하고, 영주 상수도를 안동시 북후면 석탑리에 공급하여 관로매설 비용 10억원을 절감했는데 총사업비 15억 중 3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게 됐다.

울진군은 주민들이 관리하던 금강송면 삼근2리 3개 부락(새점, 방촌, 신방)의 소규모 급수시설을 하나로 통합하는 무인 통합운영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울진군에서 직접 운영·관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해 총사업비 18억 중 4억원을 지원받는다.

경북도는 이웃 시군의 상수도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사업 등 시군의 경



계를 넘는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시군 간 경계 없는 수도시설 공동이용

및 소규모급수시설 통합운영을 통해 도내 어디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덕군, 해파랑프리마켓 2023년 마지막 장터 개장

얼음미끄럼틀 등 가족형 체험 행사 개최



영덕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1월 25일 토요일에서 26일 일요일 양일간 강구면 해파랑공원에서 '2023해파랑프리마켓'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최한다고 전했다.

'해파랑프리마켓'은 2023지역문화협력촉진지원사업의 하나로 지역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소멸 위기에 처한 영덕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생의 발판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올해는 4월 8일, 9일 첫 번째 장터를 시작으로 매달 둘째 넷째 주말과 휴일에 프리마켓을 열어 8회차를 진행했고 영덕군민 중 업선된 20개 팀이 참가, 각자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상품으로 부스를 운영했다.

8회차 프리마켓 도중엔 춤, 노래, 악기 연주 등 다양한 공연과 서커스, 마임, 버블쇼, 풍선쇼를 개최해서 가족 단위 관람객의 뜨거운 반응을 끌어내기도 했다. 또 흑독했던 여름의 마지막 이벤트로 초대형 얼음 그릇에 화체를 만들고 즉석에서 나눠주는 퍼포먼스를 벌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 한 여름에는 야시장을 열고 야외영화를 상영하여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했다.

이번 9회차 '해파랑프리마켓'은 올해 마지막 장터인 만큼 '겨울왕국' 콘셉트로 얼음 조각과 얼음 미끄럼틀을 현장에서 깔고 설치해서 온 가족과 어린이들에

게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헬멧과 매트를 비치해서 안전하게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특히 지난 회차에 처음 도입해서 인기를 끌었던 '반짝 버럭시장'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반짝 버럭시장'은 영덕군민이면 자신에게 필요 없는 제품을 가지고 나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 중고나눔장터이다. 이번 '반짝버럭시장'에 참여할 판매자도 모집하는데 대상은 영덕에 거주하는 군민이며 모집일정은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참여할 4팀. 이어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참여할 4팀 등 총 16팀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덕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해파랑프리마켓'의 마지막 행사를 앞둔 영덕문화관광재단 담당자는 올해의 성과에 대해 "2023해파랑프리마켓은 매 회차 진행되면서 팀원 간의 결속력이 강해졌고 독립단체로서 자립의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한다"며 "이번 행사가 2023년 마지막 프리마켓인 만큼 많은 분들이 해파랑공원에 나오셔서 얼음 미끄럼틀도 타고 쇼핑도 즐기셨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밝혔다.

장문화/기자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6천만 원 획득 쾌거

대구광역시시는 21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전국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결혼이민자 인재양성 - 모국에서 못다 한 공부 한국에서 이어가요' 사례로 우수상을 차지해 특별교부세 6천만 원을 받게 됐다.

이번에 발표한 사례는 전국 최초로 대학과 관계기관 협약을 통해 다문화복지 한국어학과를 운영하고, 지역의 유관기관들과 체계적이고 안정적 지원을 통해 높은 취업률로 연계해 외국인주민의 지역 정착을 이끌어 내어 입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대구광역시시는 우선, 입학 희망자가 본국의 학력 확인과 서류 준비가 쉽지 않고 취업연계 등 사업을 컨트롤할 수 심점이 필요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기점센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한의대 4개 기관이 뜻을 같이하며 오랜 협의 끝에 2015년 결

대구, 전국 외국인주민 지원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혼이민자를 위한 전용학과인 다문화복지 한국어학과를 개설했다.

대구광역시시는 학비지원과 성적 우수자 포상을, 대학은 취업과 학비 지원, 교과과정 운영을, 다문화가족센터는 신입생 모집, 서류 준비 지원과 더불어 지방고용노동청은 구인구직 연계와 취업 정보 제공을 위한 협력을 추진했다.

학생들은 교과과정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지역사회 연계 창업교육을 비롯해 신입생·재학생과 소통, 현장체험 등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졸업과 동시에 국가자격증(사회복지사, 한국어교원, 건강가정사)을 취득하게 된다.

저출생, 인구감소로 모든 지방정부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문제 지적과 이들을 위한 규제만 있었다. 대구광역시시는 이들의 가치를 인식하고 역량 강화에 앞장서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한편 '2023년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한 39건의 우수사례 중 본선 경진대회 당일 8개 사례 발표·심사를 통해 최우수(1건), 우수(3건), 장려상(4건)을 시상, 각각 1억 원, 6천만 원, 3천만 원의 특별교부세가 주어졌다.

송기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장은 "앞으로도 내실 있는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을 통해 결혼이민자·자녀를 지역사회의 인재로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지역사회와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울진군,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신속 제정 재촉구

울진군은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재촉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이인선 의원에게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번 재촉구는 윤태열 울진 부군수, 김성학 경주 부시장, 김석명 울주 부군수, 박종규 기장 부군수, 김정성 영광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습식저장조의 포화가 진행됨에 따라 건식 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발



의원'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 법'('21. 9. 15. 김성환 의원 대표발

의, '22. 8. 22. 김영식의원 대표 발의, '22. 8. 31.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이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는 동안 여·야가 그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재촉하며 사용후핵연료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소재 주민들의 입장을 호소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통한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 방지 및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은 공동건의서를 발표했다.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하루빨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문경시, 도 무형문화재 '호산춘 인연을 담다' 전시회 개최

호산춘 사진전 및 시음행사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 제공



지난 20일 장수항씨 종택(경상북도 민속문화재)에서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호산춘의 홍보전시회가 '호산춘 인연을 담다'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무형문화유산의 대중화와 보전·전승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행사에서는 술을 빚는 도구 사진 및 영상 시청, 호산춘 시음 체험행사 및 고결, 천연염색 교육원, 오미자커피(오미더치)와 협력하여 지역 청년사업을 홍보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전시회는 오는 12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호산춘은 장수항씨 사정공파 중부의 손에서 손으로 전승되어 온 우리 전통의 술이며 200년 전부터

제조되기 시작했다. 호산춘은 맨쌀, 찹쌀, 곡자, 솔잎, 물로 담그고 술이 완성되는 기간은 30일이 걸린다. 호산춘은 담황색을 띠며 술이 첨가되어 술맛이 그윽하고 맛이 부드러우면서도 짜릿한 느낌을 주며, 주도는 18도로서 쌀 1되에 술 1되를 생산한다. 그 맛이 매우 향기롭고 진득해 전승되어 오다가 전통술의 독창성과 다양주의 전통성을 이어받아 1991년 3월 25일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번 행사를 진행한 황수상 전승교육사는 "역사가 살아있는 문경 장수항씨 종택에서 뜻깊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기쁘다. 많은 분들이 종부의 정성이 담긴 문경 호산춘 시음과 함께 사진 작품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동현/기자

경주시, 감포공설시장서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5만원 이상 구매시 2만원, 2만 5천원 이상 구매시 1만원 상품권 각각 지급



경주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시행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3일까지 2주간 감포공설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행사기간 중 감포공설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 취급 점포 17곳에서 수산물을 구입한 후 해당 영수증을 시장내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단 카드매출 또는 소득공제(현금 영수증) 영수증만 가능하고 간이 영수증이나 일반 영수증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평일은 같은 주 평일 영수증이

누적돼 환급이 되지만, 주말(토·일)은 당일 영수증만 환급이 된다.

환급액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40%로, 구매 금액이 2만 5000원 이상이면 1만원, 5만원 이상이면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각각 지급된다.

주의할 점은 1인당 일주일 동안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시 행사는 조기 종료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해양수산과 또는 감포시장상인회로 문의하면 된다.

윤창호 해양수산과장은 "국내 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행사기간 동안 시민 및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경북도, 전국 최초 확장형 하이브리드(Web+App)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포트' 서비스 오픈

경북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 정식 서비스 오픈



경북도는 11월 20일 '경북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메타포트는 경상북도가 2022~2024년까지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메인 공간으로 구성하여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경북 메타버스 통합 플랫폼이다.

메타포트는 이용자들이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체험을 통해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메타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과 기업이 가진 신기술을 선보여 경북이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개발해 왔다.

메타포트는 전국 최초 확장형 하이브리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웹3.0 기술을 응용하고, 웹(Web)과 앱(App)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며 Open-API를 이용하여 무한한 확장성을 고려하여 만든 플랫폼이다.

메타포트가 제공한 Open-API를 통해 로그인, 아바타 등 연동이 가능해져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이 보유한 메타버스 콘텐츠를 하나의 통합된 서비스처럼 이용할 수 있다.

메타포트 앱(App) 버전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받은 뒤 이용할 수 있다.

메타포트에 접속하면 우선 메인 화면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서 나만의 아바타를 만나게 된다.

마이크, 메시지 입력창 등이 있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며, 미니맵을 이용하면 메타포트 내 각 공간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공항 로비를 만나면 카트라이딩 게임도 즐길 수 있다.

쇼핑몰에서는 롯데면세점 등 5개 면세

점과 지역 고향장터 사이소가 있어 면세점 쇼핑과 다양한 지역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경북도청에서는 도정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로비에서 E-Book, 영상갤러리와 사진갤러리를 통해 볼 수 있다.

XR체험존으로 이동하면 체험존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방문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전시실에서는 멋쟁이 캐릭터와 함께 신라시대 와당을 활용한 퍼즐게임을 즐길 수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지사실로 이동하면 이철우 도지사과 함께 사진 촬영이 가능하며, 경북을 상징하는 날말퀴즈 게임도 즐길 수 있다.

컨벤션홀에서는 다양한 경북의 기업들을 만나볼 수 있다.

▲컨퍼런스홀은 대규모 인원 수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지역 기업들이 세미나와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전시홀에서는 각 기업의 특색있는 홍보관 개설이 가능하며, 영성회의 사무실 등을 무료로 제공하여 지역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한다.

한편, 3단계로 개발되는 메타포트는 지

난해 메타버스 공간에 통합신공항을 메인 플랫폼으로 하여 쇼핑몰을 구성하고 아바타, 채팅·회원가입, 사이트 연동을 위한 오픈 API 기능 개발 등 플랫폼 기반을 조성했다.

올해는 플랫폼 확장을 위해 경북도청, 컨벤션홀, 지역특산물 마켓 사이트 등 공간디자인을 설계했으며, 모바일 단말기 지원을 위한 앱 기능 등을 개발했다.

내년에는 관광, 교육 서비스 기능 구축 등 이용자 접근성 향상과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콘텐츠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가상투어 기능을 통해 관광지를 안내하고, 학교·교육용 강의실 연계 기능을 구현하여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메타포트는 국내 최초 확장형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웹과 앱 방식을 모두 활용하여 개방성과 무한한 확장성을 고려해 개발한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의 메타버스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라며,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데 전략적으로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순수/기자

박현국 봉화군수, 시정연설 통해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 제시

백절불요(百折不撓)의 자세로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 만들 것

박현국 봉화군수는 21일 제26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올해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속에 유례없는 이상기후까지 겹쳐 어느 해보다 험거운 시간을 보냈음에도 전국 최고 수준의 피해복구비 확보, 봉화군민체육대회 및 봉화송이한약 우수제의 성공적 개최, 봉화양수발전소 유지 총력 대응, K-베트남 벨리 조성사업 국내 반영, 봉화형 스마트팜 농업단지 조성사업 본격 추진, 소아청소년과 신설을 비롯해 군정을 활발히 추진하며 군민 행복에 앞장섰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A등급 선정과 더불어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국가 암 예방관리 성과대회 우수상 등 다수의 대내외 수상으로 이어져 군의 위상을 높였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시정연설을 통해 스마트팜 스마트영농 구축과 경쟁력 있는 농촌을 위한 농업의 체질 개선 △인구유치 기반 확대에 지방소멸 위기 극복 △봉화만의 색깔을 살린 문화관광인프라 확충 △안전진단 서민 생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누구나 행복한 희망복지 실현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



는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군민과 눈높이를 같이하는 소통 섬김행정 추진 등 내년도 7가지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봉화형 스마트팜 농업단지 조성사업과 임대형 스마트팜 창업농 교육으로 첨단농업으로의 전환을 앞당길 예정이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임업 확대와 외국인계절근로자일자리중개센터 건립, 농기계임대사업소 준공, 농작물 재해 신속 대응과 재해보험료 지원으로 농가경영 안정을 뒷받침한다. 또한 농작물 전염병과 가축전염병도 상시 예찰 활동을 강화해 유입차단에 최선을 다한다.

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봉화바이오메디 U-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해 청년 유입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최대한 확보한다. 전원주택단지, 민간아파트 건설로 인구유치 기반을 확대하고, 귀농귀촌지원,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 인구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베트남 문화교류를 확대해 베트남 테마 관광콘텐츠를 선점하고, K-베트

남 벨리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봉화산타마를 콘텐츠로 확충하고, 백두대간힐링 팻 빌리지 조성으로 봉화만의 색깔을 살린 아이템 개발에 힘쓰며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특화 산업 육성사업과 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타워 건립, 아케이드 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봉화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속하며 지역 상인들의 경영안정을 돕고 미래 먹거리 발굴에 군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초고령화사회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평생 학습도시 구축, 모두의 놀이터 조성으로 모든 계층이 행복한 봉화를 만들 예정이다.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생활안전 예방시설도 확

충한다. 군민안전보험을 지원하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를 정비하는 등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내성지구 개발사업과 봉화·충양 도시재생사업으로 노후화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어촌버스요금무료화를 추진해 군민들의 교통복지도 개선한다.

더불어, 직원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수시 현장 방문을 활용한 소통으로 군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공직자 청렴의식 함양으로 신뢰받는 행정문화를 정착하고 불합리한 규제개혁으로 군민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군정 주요시책과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5,120억 원보다 280억 원이 증가한 5,400억 원이다.

주요 분야별 예산편성 규모는 농업 경쟁력 강화에 1,375억 원, 주민 복리증진에 1,008억 원, 교통 및 지역개발에 919억 원 순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폐지하고, 각종 행정경비를 대폭 삭감하는 등 군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헛되지 쓰이지 않게 허리띠를 졸라맸다"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활력 넘치는 봉화, 청년들이 어깨 펴는 봉화,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봉화를 만들기 위해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백절불요(百折不撓)의 자세로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순수/기자

예천군, 바가지 없는 축제로 '흥행몰이' 성공

할축제, 곤충축제, 농산물축제 등 연이어 인파로 북적



예천군에서 열린 축제들이 바가지 없는 축제로 호평을 얻으며 지역을 찾는 방문객 증가는 물론 이미지 제고에도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축제와 문화행사를 매개로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계절별로 지역 정체성과 특색을 살린 예천할축제(5월), 예천곤충축제(8월), 삼강주막 나루터축제(9월), 예천농산물축제(11월) 등을 개최했다.

특히, 축제마다 외지 상인 없이 지역 주민이 참여해 '축제 특수'를 이용한 바가지 논란 없이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 다양한 체험 공간과 무료 이벤트, 시식 행사 등으로 관광객들에게 재미와 추억거리를 선사하며 좋은 인상으로 남고 있다.

지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2023 예천농산물축제'에서도 각 읍·면별 부스에서 검증된 품질의 지역 농특산물을 농가가 직접 판매해 저렴한 가격과 최고의 품질, 소포장 등으로 인기를 끌었으며, 축제장에서 판매되는 음식들도 시중에서 보기 드문 1만 원 이하 가격으로 맛과 양 모두에서 관람

객들을 만족시켰다. 축제 구성면에서도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예천사과 월드컵',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한우 구이터 운영' 등은 농가의 노력과 맞아떨어지며 3일간 15만 명 방문, 개별 농가 및 읍면별 농산물 부스 판매액 6억 8천 3백만 원이라는 성과를 내며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또, 지난 추석 연휴에 열린 '삼강주막 나루터축제'도 6만 명 넘게 방문했으며, 5월에는 예천만의 특색을 살린 이색축제인 '예천할축제'에 비가 내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7만 5천 명이 축제장을 찾는 등 축제마다 인파로 북적이며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방문객에게 좋은 기억을 남기는 게 예천을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핵심이라 생각하고 축제장 주변 식당과 숙박업주들도 함께 참여해 더욱 깨끗하고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다"며 "관광객들이 언제 방문하더라도 특별하고 즐거운 추억을 담아가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자/기자

국립 전문과학관 포항에 들어선다! 과기정통부 타당성 조사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포항 전문과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 최종 통과

포항시가 지방과학 기술혁신을 주도 할 국립전문과학관 건립지로 최종 선정됐다.

포항시와 경상북도는 지난 17일 과기정통부가 실시한 국립포항 지구(지질, 기후)-해양 분야 전문과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결과 사업 시행의 필요성이 인정돼 타당성 조사를 최종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립포항 전문과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는 올해 3월부터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경제성·정책성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 및 정책성 분석, 지형균형발전분석 등을 실시했다.

앞으로 포항시는 지구, 지질, 해양 등을 아우르는 지오사이언스(Geo Science)를 주제로 건축 연 면적 6,000㎡, 총사업비 495억 원에 해당하는 국립 전문과학관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경상북도와 협력해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국립전문 과학관 건립은 포항시와 경상북도 그리고 김병욱 국회의원이 과기정통부와 소통하며 직접 발로 뚫은 노력의 결과다.

포항은 완동해를 품고 있는 해양도시이며, 신생대 제3기층이 있는 한반도 지질자원의 보고다. 또한 지진, 수해 등의 빠른 경험 등을 통해 지구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절실히 인식했고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첨단의 과학기술 역량도 가졌다.

뿐만 아니라 포항은 2004년 우리나라 최초 과학 문화 도시로 선정된 바 있고,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구축된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비롯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막스플랑크 한국 포스텍 연구소 등 우수 과학

인프라가 밀집된 첨단과학도시로 대한민국 미래 과학 기술의 플랫폼이다.

또한 천혜의 동해 바다를 품고 있는 대표적인 해양도시며, 전국에서 가장 최신의 지질시대인 신생대 제3기층이 분포하는 젊은 땅으로 화산활동의 흔적인 주상절리와 신생대 제3기층의 생물 화석 등 포항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소중한 지질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서 발견된 '곰굴리 신생대 나무화석'이 올해 1월 나무화석 중 최초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됐고, 8월에는 '포항 오도리 주상절리'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지난 11월 7일에도 문화재청이 '곰굴리 신생대 화석산지'를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김병욱 의원은 "국립포항전문과학관이 시민을 위한 학습과 체험의 공간을



넘어 지역의 다양한 과학·문화 콘텐츠를 선보이는 지식 플랫폼이자 도심 속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과학도시로서 우리 지역이 보유한 과학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독자적이고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학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태용/기자

기후 위기, 홍수 대응을 위한 수자원 관리 방안 도출

충북도와 충북물포럼(공동대표 맹승진, 이동주)은 21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2023년 7월 홍수 원인과 대응'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맹승진·이동주 충북물포럼 공동대표와 물 관련분야를 대표하는 관련기관, 도민, 학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표(3건)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 배승중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교수가 이상 기후로 수자원 확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미래 기후변화를 예측한 자료를 활용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을 제언했다.

충북물포럼, 2023년 현안 정책토론회 개최



이어, 맹승진 충북물포럼 공동대표는 '괴산댐 상·하류 범람 분석' 주제 발표를 통해 2017년 괴산에서 발생한 홍수를 수리·수문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괴산댐 배수위 영향으로 하천 수위가 높아져 상류 지역에 수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기두 경북대 건설방재공학부 교수는 '경상북도의 홍수 대응'을 주제로 우리나라와 경상북도의 수자원 현황, 홍수 피해 사례를 발표하며 기후변화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홍수

대응책으로 기반시설 홍수안전 강화, 홍수방어체계 고도화 및 도심 침수 관리 체계화 등 홍수관리방안·제도 등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 후 진행된 토론회는 김진수 충북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이효상(충북대 교수), 이호선(한국수자원공사 선임연구위원), 이승욱(충북연구원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 전문위원), 김준기(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 사무관) 등 토론자 4명이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홍수의 원인과 대응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상 기후로 물 재해가 반복되고 있고 기후 위기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지속 가능한 물관리가 중요하다"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함양군사회복지협의회-함양지리산생태체험단지, 지역 사회복지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회복지법인 함양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11월 19일, 함양지리산생태체험단지와의 업무협약체결(MOU)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생태체험단지 내 '산, 담다' 카페에서 열렸으며, 사회복지법인 함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정흥희 회장과 담당자, 함양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서춘상 단장, 관리직원, 카페 대표가 참석했다.

정흥희 회장은 "지역 사회복지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는 함양지리산생태체험단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춘상 단장은 "함양군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소외된 이웃을 살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양군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함양지리산생태체험단지는 자연환경 보호와 생태계 복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서로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함께할 것을 다

최광용/기자



충남도가 도내 외국인투자기업이 충남을 넘어 세계 제일의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도는 이를 통해 외투기업으로부터 추가 투자를 유치, '기업하기 좋은 충남' 실현과 지역경제 발전 등 도와 외투기업의 상생발전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흠 지사는 21일 아산시 북항문화공간 모나밸리에서 유미코아, 핑커테크, 놀로지 등 이차전지 및 반도체 관련 외투기업 20개사 대표, 천안·아산시, 유관기

충남도-외투기업 상생발전 '약속'

김태흠 지사 "충남 민고 투자한 외투기업 지속 지원할 것"

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외투기업의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외투기업지원센터와 일자리경제진흥원의 기업일자리 지원사업 안내에 이어 기업이 묻고 지사가 답하는 질의응답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외투기업의 성공스토리가 곧 충남의 성공스토리"라며 "충남의 가능성을 믿고 투자해준 외투기업이 세계 제일의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한 해 동안 외자유치에 기여한

유공자와 유공기업을 포상하고, 외투기업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전한 김 지사는 향후 추가 투자 시 충남에 재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와 기업임원들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기업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 직원 통근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서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충남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있는 김 지사는 일본, 중국 등 국의 출장마다 외자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지난달 3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도정 최초로 대규모 해외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유럽 기업인 200여 명에게

투자처로서 충남의 매력을 소개한 바 있다.

적극적인 세일즈 활동은 민선8기 들어 한겨레 리드 등 세계적인 기업 20개사에서 25억 달러(3조 3416억원)의 외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했고, 국내에서도 106개사 14조 4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며 16개월여 만에 18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성과는 충남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성공스토리가 투자자를 설득한 덕분"이라며 "전국 최초로 외투공단에 무료 셔틀버스를 시행해 접근성을 높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대화의 장을 자주 열어 기업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제대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정근/기자

하동군 공동주택 시설개선으로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나다

하동지역 곳곳에 있는 노후 공동주택이 민선 8기 들어 대대적인 시설개선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나고 있다.

하동군은 지난 4월부터 10년이 넘는 관내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사업을 시행해 11월 현재까지 진교 미진스위트빌을 비롯해 28개 단지 '도표 참조'에 42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해 80%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명품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매년 10억원씩 임기 중 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상대적으로 소외된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한다.

하동군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고,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연평균 인구증감률이 -2.88%로 인구감소지역 평균 -1.55%보다 낮고 청년층 순유출이 2.3배로 가장 심각한 실정이다.

이대로 간다면 과거 10년간 5만 명에서 4만 2000명으로 15.4% 감소한 데 이어 미래 10년 후에는 3만 20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10년간 감소한 연령층을 보면 고령인구보다 청년과 중년 인구가 45% 이상 차지한다는 점이다.

하동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주택보급률은 110%에 육박하지만 빈집도 296동에 이르고 있으며,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3%에 그치는 등 그동안 자연취락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의 관심이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초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의 취지를 안내하고 사업계획신청서를 받아 신청한 28개 단지 모두를 선정했다. 구체적인 관내 최대 아파트 단

지인 진교면 미진스위트빌은 4개동 420세대로 12대의 엘리베이터가 운행되고 있지만 20년이 경과한 노후 기계설비로 잦은 고장과 안전의 문제로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고가의 교체비용을 자체 수선충당금으로는 부담하기에 역부족이었는데 군의 지원으로 3억 4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 6대를 교체하고 나머지 6대는 내년에 교체할 예정이다.

하동읍 송보파인빌은 20년 이상 노후급수관으로 인해 입주주민들은 위생상 늘 불안감을 안고 살았지만 올해 군의 지원을 받아 3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해 내달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교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대경송림타운은 외벽 도색과 옥상 방수공사로 누수로 인한 아파트의 구조 안전 및 경관개선을 통한 아파트의 이미지 제고로 인근 하동송림과 어우러져 재산적 가치도 증대됐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 밖에도 방범용 CCTV 설치, 옥

상 방수공사, 주차장 정비, 조경공사, 외벽 방수 및 도색작업 등 크고 작은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입주자 대표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어 오랜 숙원처럼 기다린 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 다행이다. 큰 토목공사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이번처럼 직접 피부에 와닿는 저예산 고효율 사업 발굴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주로 젊은 층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이나 하동군의 취약한 정주여건으로 진주·광양 등 인근 도시로 인구유출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하동군수의 특별한 관심과 강력한 지시로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3000만 원이던 예산을 10억원으로 파격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 후 입주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올해 사업을 분석해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에도 수요조사를 통한 예산의 지원 규모와 사업방향을 수립·추진할 것"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광용/기자



의성군

항공물류중심 공항도시 의성

최광용/기자

강원도, '도·시군 및 유관기관 주택분야 합동 간담회' 개최

주택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탄력적 주택공급 방안 등 논의

강원특별자치도(건축과)는 11월 21일, 강원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도내 주택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 중심의 탄력적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도, 시군 주택분야 담당자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지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강원지사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근 지속된 고금리 정책과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적 영향으로 인한 도내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시군별 탄력적 주택공급 대응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도에서는 최근 도내 주택거래량 감소와 미분양 증가 등 전반적인 주택시장 동향을 공유한 후 시군별 주택시장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별로 주택공급 입지 여건의 차이가 있으므로 각 지역 실



정에 맞는 탄력적 주택공급계획 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최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원주시는 향후 주택공급 물량이

등을 위한 강원형 공공주택 등 공공 부문 주택공급은 도민의 장기적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것을 건의했으며, 한국토지공사(LH)에서는 공공주택(분양, 공공임대) 공급계획과 추진현황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상품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준호 건축과장은 "최근 주택시장은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도 장단기적 안목에서 적절하고 속도감 있는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면서 "2018년부터 매년 간담회를 통해 변화하는 주택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해 온 만큼, 앞으로도 강원도민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충남도, '소비자중심 탄소중립 실천 약속'



충남도가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 1주년을 맞아 생활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21일 공주대학교 백제문화교육관에서 김태홍 지사와 소비자단체 회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중심 탄소중립 실천을 약속하는 '2023 충남도 소비자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가 주최하고 소비자교육중앙회충남도지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유공자 표창, 퍼포먼스,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유공자 표창은 소비자교육중앙회 천안시지회 김태연 지회장, 소비자교육중앙회 홍성군지회 정형섭 지회장,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당진지부 한계숙 지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윤정후 주무관, 공주시 박송희 주무관, 서산시 조민정 주무관, 태안군 최하림 주무관 이 소비자권익증진 및 건전상거래질서 확립 공로를 인정받아 도지사 표창을

2023 충남 소비자대회 개최... 생활속 탄소중립 다짐

특강은 김택수 공주대 교수가 '탄소중립, 지구를 지키는 한걸음'을 주제로, 공공의 적극적 탄소중립 실천 및 도민의 자발적 참여 확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도는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 이후 1년 동안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 탄소중립 연구개발(R&D) 기관 유치, 생활속 실천 확산 등 국가 탄소중립을 선도해 왔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1회용품 퇴출정책'을 도내 모든 공공기관과 15개 시군은 물론 현재는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태홍 지사는 "탄소중립을 향한 도의 노력에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주시면 도민들의 인식을 빠르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에너지전환이나 산업구조 재편과 같은 거시적인 과제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탄소중립 실천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비문화로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220만 도민, 더 나아가 5000만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탄소중립을 실천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이 11월 21일 순천향

박경귀 아산시장, 21일 순천향대서 '인간 이순신 리더십' 특강 펼쳐

박 시장 "충무공은 아산의 역사 자산, '인간 이순신' 조명할 것"

대학교 아산학 교양강좌에서 '인간 이순신의 리더십과 명량해전'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박경귀 시장은 "아산은 장군께서 성장하시고 지금도 영면해 계신 이순신의 도시"라고 강조하고 현충사·이충무공묘·계바위 등 아산시에 위치한 이순신 장군 관련 유적과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산시는 '이순신의 도시'라는 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해 1961년부터

충무공 탄신일을 즈음해 열리던 '성웅 이순신 축제'를 오로지 '이순신'에 집중한 인물 축제로 전면 개혁했고, 올해 처음으로 충무공 예장을 축제화한 '순국제전'을 실시했다"고 소개했다.

박 시장은 "아산시의 충무공의 연결고리는 우리 지역의 중요한 역사적 자산"이라면서 "아산시는 장군께서 영면해 계신 '이순신의 도시'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전쟁 영웅을 넘어 '인간 이순신'을 조

명하고 기억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산학 강좌는 아산 소재 대학교 학생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산업의 가치를 교육하기 위해 관내 대학교에 2009년 처음 개설됐다.

현재 관내 3개 대학(선문대·순천향대·호서대)에서 운영 중이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아산시장은 1년 중 한번 특강 강사로 나서 학생들에게 아산시에 대한 강연을 펼쳐왔다.

김원호/기자

태백시는 20일 태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2024년도 태백시 본예산안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5,196억 원으로, 일반회계 4,574억 원, 특별회계 622억 원으로, 국내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전국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민선 8기가 지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분야별 핵심사업 추진 등 재정운영 방향에 맞추어 전년도 예산보다 70억 원이 증가된 예산안을 제출했음을 밝혔다.

제출된 예산안과 함께 2024년 태백시정 방향을 경제활성화 부문에서는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기간 중비 단계에 머물러 있던 지역특화사업의 성공적 안착으로 지역경기의 부양을 이끌고, 장성광업소 환원부지를 중심으로 미래에너지 제조산업과 핵심광물 거점산업 등 미래전략산업 유치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으며,

스포츠 분야는 다이나믹 스포츠 산업 도시 구축의 원인으로 삼고 종목별 스포츠 기반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다양한 스포츠 종목의 대회를 사계절 내내 개최하여 스포츠인으로 불리는 도시를 만들고,

이상호 태백시장, '2024년 시정연설'

'작지만 강한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내일이 더 좋은 태백시'로 만들 것

관광·문화 분야는 우리 시가 보유한 천혜의 산림자원을 이용한 힐링과 치유, 산악 스포츠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산악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과 콘텐츠를 연결하여 체험과 즐길 거리 풍부한 체류형 관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설명했다.

또한 교육·복지 부문은 차별화된 교육과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특성화고 개편으로 지역 고등학교의 경쟁력 강화, 태백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통한 이익금의 시민 공유제로 학업장려금 및 보호자 없는 병실, 요양병원 지원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정책을 확대할 계획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이 염원하는 고속교통망인 동서고속도로 태백IC 유치 및 예비타당성 통과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태백선의 직선화 및



2028년까지 태백선과 영동선의 무궁화호를 준고속열차 ITX-마음으로 교체 운영을 위해 노력하며, 시민의 안전망 강화와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함께하며 민선8기 시정혁신을 주도할 것임을 밝혔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2024년 시정운영의 정상 추진을 통해 미래의 성장동

력이 제 궤도에 오르게 되는 2027년에는 인구감소의 정점을 찍고 다시 회복하는 태백의 재도약을 만들어 낼 것이며, 모든 열정을 다 바쳐 사랑하는 태백시를 작지만 강한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더 나은 새로운 태백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근/기자

천안시립미술관, 전시연계프로그램 '시선이 닿는 곳' 운영

천안제로프로젝트 <이름 없는 소우주>
A nameless Microcosm

김가를 작가와 함께하는 전시연계프로그램 : 시선이 닿는 곳

PART1. 아티스트 토크
PART2. 퍼포먼스

2023. 11. 25. 5시~14:00
천안시립미술관 제2전시실

천안문화재단 CAMOA 천안시립미술관

25일 천안제로프로젝트 '이름 없는 소우주' 전시연계프로그램 진행

천안시립미술관은 오는 25일 제2전시실에서 2023 천안제로프로젝트 '이름 없는 소우주' 전시와 연계한 융복합 설정극 프로그램 '시선이 닿는 곳'을 선보인다.

이번 프로그램은 김가를 작가의 작품세계를 강충만(현대무용), 구은서(성악), 조유진(한국무용)과 함께 음악과 몸짓의 언어로 확장·재구성했다.

관람객은 '시선의 흐름(2023)' 설치 작품 속에서 움직이는 무용수의 시선과 빛, 소리의 울림을 따라가며 감상하면 된다.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며, 천안시립미술관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각예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미술관 관계자는 "작품을 온몸으로 느끼는 예술 경험을 통해 전시와 작품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탐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원주시 역사문화 발전 및 양 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강원문화재연구소·원주시역사박물관' 학술·연구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강원문화재연구소와 원주시역사박물관은 11월 20일, 원주시역사박물관 회의실에서 원주시 역사문화발전 및 양 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학술·연구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 협약 체결에 따라 앞으로 공동연구 수행 및 학술행사의 공동개최, 학술자료, 출판물, 지식정보 공유, 연구자료 활용 및 인적 자원 등의 교류, 학술자료 조사 연구 및 아카이브 구축, 공동캠페인, 교육 및 조사 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시행 등 상호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강원문화재연구소 최중모 소장은 "최근 원주지역 발굴조사 및 정비복원, 아카이브 구축운영 사업을 원주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주시와 긴밀한 협력체계 필요성을 공감했으며, 향후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관리 및 원주시 역사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원주시역사박물관 차순덕 관장은 "양 기관이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원주시의 역사문화 학술연구, 자료수집, 전시,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서울시, '세계적 수준 지열 에너지 도시' 만든다... '30년까지 지열 1GW 보급

공공 지열 보급 ↑ ... 가락시장 ·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5대 권역 사업에 지열 랜드마크 조성

세계 주요 국가들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나서는 가운데, 서울시가 세계적 수준의 '지열에너지 도시 서울'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건물 냉·난방에 278MW 보급되고 있는 지열 에너지를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1GW(1,000MW) 수준으로 확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열 냉·난방은 땅속의 일정한 온도(평균 15°C)를 건물 냉·난방에 활용하는 것으로 날씨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내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미국환경보호청(EPA)에서 '현존하는 냉·난방 기술 중 가장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기술'로 인정한 신재생 에너지원이다.

지난 6월 기준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은 태양광 392MW(37.3%), 지열 278MW(26.4%), 연료전지 195MW(18.5%), 수열 82MW(7.8%) 등 순이다.

이에 공공부문에서의 지열 보급을 선도하기 위해 가락시장,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5대 권역별 시 주요 거점사업에 지열 설비를 도입하는 등 지열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또 높은 초기 투자비, 공사기간 지연 등 지열 냉·난방에 있어 설치·운영상 어려움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서울형 지열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해 시범운영하고, 공사계획부터 운영단계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컨설팅) 그룹을 운영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지열 보급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온실가스 발생 비중이 높은 건물 열 공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열에너지를 도심 주요 에너지원으로 전환한다는 게 핵심이다.

최근 온실가스 발생 비중이 높은 건물 열 공급 부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주요 선진국들도 도심 건물의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건물의 화석연료 사용 의존도를 줄이

기 위해 (독일) 2024년부터 신규 택지 개발지역, (영국) 2025년부터 모든 신축건물, (뉴욕주) 2026년부터 7층 이하 신축건물에 대해 가스보일러 설치를 금지한다. 또한, 독일의 경우 연면적 50㎡ 이상 신축건물에 재생열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RHO(RHO Renewable Heat Obligation)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펌드를 조성해 2022년 재생열 프로젝트에 3억5,000만 유로를 지원하는 등 재생 열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서울 역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0%를 건물 분야가 차지하고 건물 에너지의 56%가 냉·난방에 소요되고 있는 만큼, 화석연료 배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날씨에 따라 불규칙하고 도시경관 훼손 등이 문제되는 태양광이나 풍력과 비교해 지열은 천공 깊이와 간격, 적용 공법 등을 최적화하여 단위면적 당 높은 열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고 설비를 지중화해 도심에서 활용하기 적합하다.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한 '지열 보급 활성화 종합계획'은 2030년까지 원전 1기에 해당하는 지열에너지 누적 보급 1GW 목표에 따라 3대 과제·10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한다. 3대 과제는 △공공부문 선도적 역할, △민간부문 확산 유도, △보급활성화 기반 확충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지열 랜드마크 건설 ②5대 권역별 지열 선도거점 구축 ③공공부문 지열 의무화 도입 ④지열을 활용한 약자 동행 ⑤서울형 지열 인센티브(혜택) 신설 ⑥제도개선을 통한 보급기반 확충 ⑦기술 개발 지원 및 표준 매뉴얼(지침) 제작 ⑧ 지열 전문 시공단 및



컨설팅(자문) 운영 등이다.

먼저, 가락시장은 2030년까지 국내 최대규모(23MW)의 지열 설비를 도입해 건물 냉·난방 90% 이상을 지열로 공급하는 한편, 용산국제업무지구(도심권), 서울아레나(동북권), 가락시장 현대화(동남권), 서울혁신파크(서북권),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복합개발사업(서남권) 등 5대 권역별 시 주요 사업에 대규모 지열 설비를 도입해 국내 지열 명소로 조성한다.

가락시장에는 '27년까지 지열 홍보관을 건립해 지열 냉·난방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우수사례 등을 소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지열에너지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락시장은 냉·난방 90% 이상을 지열로 공급하며, 상시 운영시설인 경매장 저장·저온 시설, 중도매인 점포는 냉·난

방 100%를 지열로 공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열 명소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부문에서 지열 보급을 선도하기 위해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신축, 개축 공공시설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2023년 32%) 중 50% 이상을 지열로 우선 적용하고 건축 기획 단계부터 지열 설비를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를 강화한다. 자치구 보조사업에도 지열을 우선 도입해 나갈 방침이다.

화석연료 냉·난방에 비해 에너지 비용을 약 40% 줄일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덜한 지열 에너지를 남부장애인지원복지관 등 냉난방 수요가 많은 기숙 시설에도 도입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도 넓힌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고덕강일지구에 공급하는 청년주택 등은 지열 냉·난방을 포함한 제로에너지 아파트로 짓고, 공공 의료시설에는 냉·난

방 100%를 지열로 공급해 친환경 의료 시설로 구축한다.

특히 병원, 식물원, 사회복지시설 등 냉·난방 수요가 많은 건물은 4~5년이면 초기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우수한 경제성을 갖추고 있다.

초기 투자비 등 민간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서울형 지열 인센티브(혜택) 제도를 신설해 내년부터 시범운영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민간 건축물에 지열 냉·난방 설비 설치 시 초기 비용의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고, 소규모 지열 설비는 지열 생산량에 비례해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영국은 재생 열에너지 생산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하는 '재생열에너지 인센티브 제도'(RHI, Renewable Heat Incentive)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아울러, 지열을 포함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균형 있게 보급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을 개정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 민간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제로에너지건물 보정계수 현실화에 대해서도 소관부서인 국토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지열 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2024년부터 연구개발(R&D) 과제 공모를 진행해 연간 3~5건 선정 및 예산을 지원하여 관련 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또한 표준 매뉴얼(지침)을 제작·배포해 설치 및 운영상 편의를 제공한다.

연구개발(R&D) 주요 과제는 냉매와 토양 간 효율적 열교환을 위한 소재 사용 등 공법개발, 지중과 열교환을 위한 친환경 냉매 사용, 히트펌프 효율 개선 등이

내년부터는 공공부문 지열 공사에 전문 시공단을 운영해 천공, 기계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복합공정으로 난이도가 높은 지열 공사의 품질을 확보한다. 또한 공사계획부터 운영단계까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자문) 그룹을 구성해 설치·운영상 애로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포함지진 이후 지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사례 발굴, 민간분야와 협업 강화 등 대시민 홍보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17년 발생한 포함지진이 지열 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는 정부 조사단 공식 결과 발표에 따라, 지열 냉·난방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확산했으나, 깊이 4~5km의 지중의 뜨거운 물을 추출하는 지열발전과 달리 지열 냉·난방은 깊이 200~300m의 지열을 통해 열교환을 하는 시스템으로 지진 발생과 전혀 무관하다.

시는 이와 같은 종합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지열 1GW를 보급하게 되면 온실가스 51만8천톤(CO2)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차 32만3천839대 보급과 상응하는 효과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열은 사계절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친환경에너지로 화석연료 대비 에너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지열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열은 사계절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친환경에너지로 화석연료 대비 에너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지열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열은 사계절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친환경에너지로 화석연료 대비 에너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지열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열은 사계절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친환경에너지로 화석연료 대비 에너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지열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열은 사계절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친환경에너지로 화석연료 대비 에너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지열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열은 사계절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친환경에너지로 화석연료 대비 에너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지열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열은 사계절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친환경에너지로 화석연료 대비 에너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지열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열은 사계절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친환경에너지로 화석연료 대비 에너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지열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열은 사계절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친환경에너지로 화석연료 대비 에너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지열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열은 사계절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친환경에너지로 화석연료 대비 에너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지열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열은 사계절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친환경에너지로 화석연료 대비 에너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지열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열은 사계절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친환경에너지로 화석연료 대비 에너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지열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겨울철 대비 공사장 안전 점검 나서

광명시가 겨울철 건설공사장 재해 예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관내 재개발, 재건축, 철도 공사 등 11개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대비 안전사고 예방 점검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21일에는 김규식 광명부시장을 단장으로 6개 관련 부서, 외부 전문가, 소방서 등 외부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안전관리혁신 TF팀'이 발파 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광명제5R구역에서 집중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안전관리혁신TF팀'은 각종 재해와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0월 구성한 조직으로, 그간 재개발 재건축 공사장,

11월 30일까지 관내 11개 공사장 대상 안전 점검

도로, 하천, 다중이용시설, 방역시설 등 현장 중심의 점검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점검에 나선 안전관리혁신TF팀은 김 부시장과 6개 관련 부서장을 비롯해 광명소방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회, 자율방재단, 시민안전기동반, 안전관리자문단 등 20명이 참여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대형재해 5대 건설장비 안전기준 확보 및 관리 여부 ▲3대 중대 재해 건설작업 안전기준 확보 및 작업관리 여부 ▲동절기 갈탄 사용 및 알코올버너 사용에 따른 질식

위험 사전 예방 ▲겨울철 양생 중 등바리 교체 등 작업 여부 ▲용접, 연마 등 화염 발생 대비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등을 살폈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조치가 어려운 위험 요소는 보수·보강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대비 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관내 공사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민/기자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겨울철 제설대비 현장점검

청원구 전진기지 찾아 제설 준비 태세 점검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은 겨울철을 맞아 21일 청원구 전진기지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제설작업 준비 태세를 점검했다.

신 부시장은 제설 장비와 자재 등을 점검하고 "청주시 도로는 인접지역으로 출퇴근을 위해 이용하는 중요한 도로를 담당하고 있다"며, "항시 긴장을 유지해 비상 시 신속하고 즉각적인 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주시는 간선도로, 시도, 군도 등 총길이 851.2km를 72개 노선으로 편성했으며, 취약구간의 효과적인 제설



을 위해 각 구청에 제설 장비 54대(덤프트럭, 백호우 등)와 염화칼슘 1,621톤, 소금 8,638톤, 친환경 염화칼슘 454톤을 준비했다.

특히 이면도로 등 폭설취약구간 및 빙판길 제설을 위해 읍 면 등에 제설차량(1톤) 67대를 준비했으며 민간용역으로 제설작업을 시행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작업시행은 물론 행정복지센터 인력난도 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손수레 살포기 600여대, 송풍기 65대 등을 추가로 구비해 좁은 골목길 등 제설사각지대의 제설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위해 민전을 기할 계획이다.

고정화/기자

경쟁의심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동해안 청정해역! 안전한 우리 수산물!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온학교 콘텐츠 활용과 편의성 개선을 위한 '온학교.com' 누리집 구축 운영

경북교육청은 초등학교 학습플랫폼 '온학교' 다시 보기 콘텐츠를 목록화하여 이용자들이 원하는 수업을 손쉽게 찾아 학습할 수 있는 '온학교.com' 누리집을 구축하여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온학교'는 학생 주도적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경북교육청의 초등학교 온라인 학습플랫폼(유튜브 기반) 수업으로 매일 저녁 7시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무료 플랫폼으로 구독자 수 15,800명, 수업 영상 조회수 160만 뷰 이상으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지난 2020학년도부터 시작한 현재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는 자기 주도적 학습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온학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실시간 원격수업 참여 인원은 줄어드는

반면 다시 보기 콘텐츠의 이용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유튜브 플랫폼의 특성상 콘텐츠가 누적될수록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손쉽게 찾기가 쉽지 않게 됐다.

이를 해결하고자, 경북교육청은 교육과정 편제 순으로 온학교 다시 보기 콘텐츠를 목록화하여 나열하고, 검색 기능을 추가한 '온학교.com' 누리집을 구축했다.

'온학교.com' 누리집은 학생들에게는 원하는 내용의 수업을 손쉽게 찾아 학습하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구실을 할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는 2개 학년을 동시에 지도해야 하는 복식학급에서 학년 맞춤형 지도에 활용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없는 소규모 학급의 수업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방과 후 돌봄이나 방과 후 교과 보충 프로그램에서도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검색 등의 편의성을 고려한 '온학교.com' 누리집은 학생들의 학



습권 보장과 교원의 수업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코로나19 상황은 중식했지만, 학생들의 학습 결손 해소와 더불어 자기 주도 학습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교육청이 매일 저녁 진행하는 실시간 수업 '온학교'는 2021년 교육부 주관 교육 분야 정부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를 수상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수업, '온학교.com'에서 만나요

경북교육청, 지역 우수 기술인재 취업 활성화를 위한 장 마련

직업 교육 혁신 지구 참여기업 사전 채용설명회 개최



경북교육청은 21일 구미여자상업고에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과 취업담당자 470여 명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 혁신 지구 참여기업인 '(주)자화전자'의 사전 채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지난 10월에 실시한 참여기업 운영협의회에서 논의했던 채용 추진 절차 개선 방안의 목적으로 마련됐다.

경북교육청은 지역 전략산업에 특화된 산업 인력양성을 위해 맞춤형 인재

육성과 교육청,지자체가 상호 협력하여 직업계고등학교와 지역기업, 대학이 연계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 인재 양성과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자화전자는 내년도 채용 예정 인원 50명을 사전 선발해 기업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2024년 하반기에 채용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로 학생들은 희망하는 기업에 조기 취업 확정뿐만 아니라, 요구되는 기본 자질과 사전지식 습득으로 기업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고, 학생들의 현장 적응력 향상으로 채용 기업체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채용설명회뿐만 아니라 도내 직업계고 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역 내 우수기업에 취업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고 지역기업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규모 연합 연주로 '하나의 울림' 선사 경남교육청, 21일 창원레포츠파크에서 2023 경남학교예술교육대축제 개최

경상남도교육청은 21일 창원레포츠파크에서 학생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 교육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023 경남학교예술교육대축제 '하나의 울림'을 열었다.

'하나의 울림'은 지금까지 해오던 학교 예술 교육 발표회와는 달리 대규모 연합 관현악단, 합창 등을 통해 경남의 교육 공동체가 공감·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자리이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44개 학교와 단체 2,000여 명은 지난 4월 '하나의 울림' 연합 공연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서로 소통하면서 곡을 정했고 편곡, 퍼포먼스 등을 준비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민 등에게 예매를 받아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초대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음악으로 치유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분청초등학교와 퇴촌농악의 길군악이 공연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2,000

연합 공연단 2,000명여 명과 관객 3,000여 명이 음악으로 소통하는 장 마련



여 명이 개막 곡으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Richard Strauss)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동시에 연주하여 거대한 '울림'을 선보였다. 이후 연합 국악과

관악, 관현악 순으로 공연이 펼쳐졌고, 연합 합창단이 퍼포먼스를 하며 웅장한 울림으로 하나가 되는 감동의 선율을 선사했다.

장재현/기자

'담배와 친구하지 않아요'

흡연예방교육 캠페인 및 공연 관람

상주시 낙동초등학교는 지난 20일(월), 학교 솔빛관에서 '우리는 담배와 친구하지 않아요'란 주제로 흡연예방 체험활동과 공연 관람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 날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부스 운영을 통해 담배의 해로움을 직접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콩나물 시루 관찰 부스에서는 담배 우린 물과 수돗물에서 각각 기른 콩나물 잎과 줄기 등을 살펴보았다. 6학년 학생들의 도움으로 전교생 금연 서약 나무를 완성하고 미래의 나에게 금연다짐 편지쓰기로 체험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체험 행사에 이어 호빵아저씨와 함께하는 흡연예방 공연을 관람하였다. 퀴즈로 담배의 성분을 알아보고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온몸으로 담배로 인한 질병들을 표현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행사에 참여한 6학년 윤○○ 학생



은 "콩나물 시루를 관찰하면서 키가 크려면 절대 담배를 피지 말아야겠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김희연(자)인 성태기 교장은 "1학기에 이어 지속적인 흡연예방 활동을 통해 청소년 흡연율을 줄이고,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김희연/기자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의와 함께 만들어가는 화해중재 공감토크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11월 21일에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의와 함께 만들어가는 화해중재 공감토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광주하남 지역의 초등, 중학, 고등, 특수 교육 기관 등 106교의 화해중재단, 교원, 1교1조정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화해중재 공감토크에서는 14개 지구의 학생생활교육협의체가 함께 참여하여 △ 경기도교육청 화해중재 모델 소개와 매뉴얼 안내 △ 화해중재 의미와 적용 방안 특강 △ 현장 갈등 분석과 화해중재 현장 사례 공감토크 △ 광주하남 특화된 화

해중재 방안 모색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의 분임토의가 운영됐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특색사업으로 별세(1교1조정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지역 특화된 화해중재단을 운영하여 학교폭력, 학생인권침해, 교육활동 침해 등 학교 내 갈등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의와 함께 만들어가는 화해중재 공감 토크를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관련한 학교급별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교육 전문가들과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교류하

1교1조정전문가, 화해중재단, 지구별생활교육협의회의의 공감 소통 자리

며 협력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성미 교육장은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의와 함께 만들어가는 화해중재 공감토크는 지역 내 교육공동체가 함께 소통하고 경험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다양한 사례를 듣고 나눔으로써 향후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지역 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재현/기자

부산교육청 부산창의융합교육원, '영화 속 기후위기' 특별전시회

명화를 활용해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기후변화 위기 체험



2023년 지역과학관 협력 지원 사업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Busan Institute of Creative Convergence Education

공동활용을 통한 지역과학관 전시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전시물은 ▲온실가스, 플라스틱, 이상기후, 기후변화 대응방안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주제로 이루어진 체험형 전시물 6종 ▲버려진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소품을 제작할 수 있는 플라스틱 사출기 1종 ▲누리호(KSLV-II) 발사임무 체험용 시뮬레이터 1종이다.

전시내용은 몽크의 '절규', 김홍도의 '논밭이', 신사임당 '초충도' 등 익숙한 명화를 영상 형태로 새롭게 재해석하여 관람객의 체험 및 조작 결과가 디지털로 제작된 영화에 반영되어 과학현상 또는 과학 원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마트 계산대, 낚시 등 일상생활에서의 체험과 명화를 결합시켜 전시에 대한 호기심과 신선함을 제공한다. 주말에는 전문 과학해설사의 해설도 들을 수 있다.

류성욱 창의융합교육원장은 "영화 감상을 통한 기후변화 위기의 직·간접적 체험으로 모든 세대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창의융합문화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울산교육청,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서 울산 학생 모두 수상

제11회 전국 이중언어말하기대회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 대표 학생 3명(초등부 2명, 중등부 1명)이 모두 상을 받았다.

시에르(서초초 4학년) 학생이 초등부분에서 교육부장관상 은상을 받았고, 정유이(명덕여중 2학년) 학생이 중등부분에서 교육부장관상 동상을 받았다. 아이샤(서부초 6학년) 학생은 한국어국어대학교총장상 특별상을 받았다.

전국 이중언어말하기대회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재능을 학생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해마다 열리

초등부 시에르 은상·아이샤 특별상, 중등부 정유이 동상

고 있다.

교육부와 (주)LG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 18일 서울 LG 사이언스파크 ISC통합지원센터에서 열렸다.

대회에는 17개 시도교육청 대표 학생 54명(초등 29명, 중등 25명)이 참가했다.

울산에서는 지난 9월 지역 예선을 거쳐 초등부 2명과 중등부 1명의 학생이

울산 대표로 참가했다.

대회는 한국어로 발표 후 같은 내용을 부모 모국어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초등부는 나의 꿈, 학교생활, 다양한 문화 등 자유 주제로, 중등부는 나의 진로 계획을 주제로 진행됐다.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인 시에르 학생은 '나의 이야기가 온 세상에 기록처럼 퍼지기를'을 주제로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와 자신의 꿈을 발표했다.

황규진/기자

영등포구, 2024년 예산안 8,935억 원 편성...약자와의 동행에 집중

희망·행복·미래 예산 편성, 분야별 집중 투자... 약자와의 동행에 2,578억 원 투입

영등포구가 2024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642억 원(7.7%) 증가한 8,935억 원(일반회계 8,700억 원, 특별회계 235억 원)을 편성하고 구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구정 목표인 '희망, 행복, 미래도시 영등포' 실현을 위한 민선 8기 두 번째 본예산이다. 구는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희망 예산) ▲안전, 녹지 등 생활밀착 행정을 통한 주민 행복 특별구 조성(행복 예산) ▲미래 인재 육성과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미래 예산)로 나눠 구정 목표에 맞춘 분야별 집중 투자를 단행한다.

먼저 '희망 예산'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경제적 취약 계층을 위해 더욱 탄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구는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에 전년 대비 202억 원 증가한 1,994억 원을 편성한다. 저소득층의 빈곤 탈피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31억 원을 반영,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을 마련한다.

또한 보훈예우 수당 증액, 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장애인 활동 지원, 느린 학습자 교육 등 함께하는 복지도 세심하게 챙긴다.

동시에 불황 시 가장 힘이 되는 일자리 복지를 위해 어르신,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사업에 209억 원을 반영한다. 4차 산업 청년취업 교육,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 청년을 위한 따뜻한 계층 이동 사다리도 지원한다.

두 번째 '행복 예산'은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 녹지 등 생활밀착 행정에 195억 원을 편성한다.

주택가, 골목길 CCTV 설치 및 도로·교통 등 안전 인프라 개선에 37억 원을 투자하고, 풍수해 보험 가입 확대, 풍수해 없는 마을 조성 등 기후변화 대응에 67억 원을 편성한다. 이를 통해 무차별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해 없는 기후 안심도시 조성에 집중한다.

그 외 수변문화 페스티벌 개최,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문화 인프라 확대와 전국 파크골프 대회 유치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50억 원을 반영해 구민 행복지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예산'은 영등포의 내일을 선도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과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인프라 투자에 292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24년 출범 예정인 미래교육재단 운영에 12억 원, 과학문화 이용권 등 과학교육 생태계 활성화에 17억 원을 편성하는 등 4차 산업 시대 영등포의 미래를 이끌어 갈 혁신적인 인재 육성에 힘을 실는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등 맞춤형 도시개발 지원에 13억 원을 편성해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 높은 미래도시 도약을 가속화한다.

2024년도 예산안은 12월 6일부터 20일까지 총 15일간 진행되는 영등포구의회 심의와 12월 2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약자 복지 강화, 구민 행복 증진, 미래도시 준비 등 꼭 필요한 곳에 재정 수요를 골고루 배분했다"라며, "특히 이번 예산안은 약자 복지에 가장 많은 예산을 배분했다. 힘든 상황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먼저 챙기고 구민에게 힘이 되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황신/기자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도시가스 종사자 대상 찾아가는 교육 실시

도시가스 안전점검 코디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교육 실시

서울 성북구가 11월 중 3회에 걸쳐 관내 도시가스 기관인 (주)에스코(삼선고객센터, 정릉고객센터)와 성북구 도시가스고객센터에 방문해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했다.

구와 지역 내 도시가스사는 2019년 11월 위기가구 발굴·지원 및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찾아가는 교육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해 구에 통보 시 구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주)에스코 삼선고객센터(대표 윤석영), (주)에스코 정릉고객센터(대표 권영진), 성북구도시가스고객센터(대표 이석운, 윤정호) 3개소 대표가 참여한 이날 교육에서는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감지하는 방법, 위기가구 발굴 시 신고·제보 요령 등을 전파했다. 3개 도시가스기관의 대표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으며, 구 또한 위기가구 신고 발생 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구의 도시가스 종사자는 매달 관할구역 가구의 가스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있으며, 그 중 안전점검 코디는 연 2회(상,하반기) 성북구 전가구를 가가호호 방문해 가스비 체납, 갑작스런 위기발생 가구 등 취약계층 발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구민을 자주 접하는 도시가스 종사자들의 세심한 관심과 신고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발굴된 가구가 신속하게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한 기관의 대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구청과 도시가스 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도시가스 종사자가 사용자 가정에 방문하면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도움이 되고 싶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강성원/기자

서대문구, 온실가스 감축 위해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

캠페인 통해 일상생활 속 실천 과제 제시..'기후모아' 앱 가입 홍보

서대문구는 구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 캠페인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이를 통해 에너지 절약, 물 절약, 자원순환, 교통, 식생활, 소비 습관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10가지 실천 서약을 받는다.

또한 지난달 구가 자체 출시한 '기후모아' 앱을 홍보한다. 이 앱에는 텀블러 사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11개의 탄소중립 실천 미션이 있으며 이를 완수한 뒤 인증하면 포인트가 쌓인다. 이 포인트로 서대문사랑상품권 또는 봉사활동인증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구는 이달 중 서대문세무서와 관내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캠페인을 실시한다.

아울러 구민 누구나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서대문구 기대공간(응암로2길 15)에서 집게, 장갑, 봉투 등 플로깅(걷거나 달리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 도구를 무료로 빌려준다.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은 "구민 한 분 한 분이 실천하시는 일상생활 속 작은 활동이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이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다같이 줍자 서대문 플로깅

상시플로깅

<기대공간 운영시간>
월~금, 10:00 ~ 18:00

플로깅이란?
조깅을 하거나 걸으면서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활동입니다.

플로깅 참여방법?
원하는 구간에서 플로깅을 하고 인증하면 참여자 전원에게 제로웨이스트물품 증정!

1. 기대공간에서 플로깅 키트대여 2. 1인당 1인용봉투 3. 기대공간에서 플로깅인증 4. 제로웨이스트물품수령

플로깅 키트는 반드시 기대공간으로 반납해 주세요!!

문의: 기대공간 02-330-8114
기대공간 주소: 응암로2길 15(북가좌동)

서울 중구,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첫 삽'...2026년 준공

주민센터, 경로당,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등 들어서

서울 중구가 소공동에 새로운 행정복합 청사를 마련한다. 구는 지난 20일 주민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착공식을 열어 새 청사 건립의 기쁨을 나누고 안전한 시공을 기원했다.

소공동 주민센터 건물은 지은 지 52년이 지나 낡고 비좁다. 동 주민이 2천 명밖에 없지만, 민원 서류 발급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인근에 기업이 많아 대량 서류 발급 등 업무가 소공동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1층 민원실은 업무를 보러 오는 사람들로 늘 북적이는데 대기할 공간도 마땅치 않다.

자치회관 강의실도 10명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작아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다. 엘리베이터도 없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2026년 새 행정복합청사가 지어지면 중구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한층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소공동 행정복합청사는 서소문동 122-4번지에 걸쳐 843.2㎡ 면적에 세워진다. 지하 3층~지상 11층 규모로 연면적은 6,484.06㎡에 이른다. 지상 2층에는 주민센터 민원실, 3층에는 자치회관, 4층에는 경로당과 공무원 휴게실 등이 들어선다. 상업지구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6층에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7층~10층에는 스마트창업지원센터가 들어선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소공동은 덕수궁, 송례문, 한국은행, 서울시청, 특급 호텔 등이 자리한 서울의 중심 상업지구이자 관광지"라며, "새로 짓는 청사는 도심에 거주하는 중구민은 물론, 기업인도 상생할 수 있는 지역의 거점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원/기자



중구는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과 연계해 기부채납을 받아 새 청사를 짓는다. 땅값 비싼 서울 도심에 청사를 새로 지으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세수가 줄어 재정이 넉넉지 않을 때, 공공기여로 소중한 공간이 마련된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만족도와 기대감이 높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소공동은 덕수궁, 송례문, 한국은행, 서울시청, 특급 호텔 등이 자리한 서울의 중심 상업지구이자 관광지"라며, "새로 짓는 청사는 도심에 거주하는 중구민은 물론, 기업인도 상생할 수 있는 지역의 거점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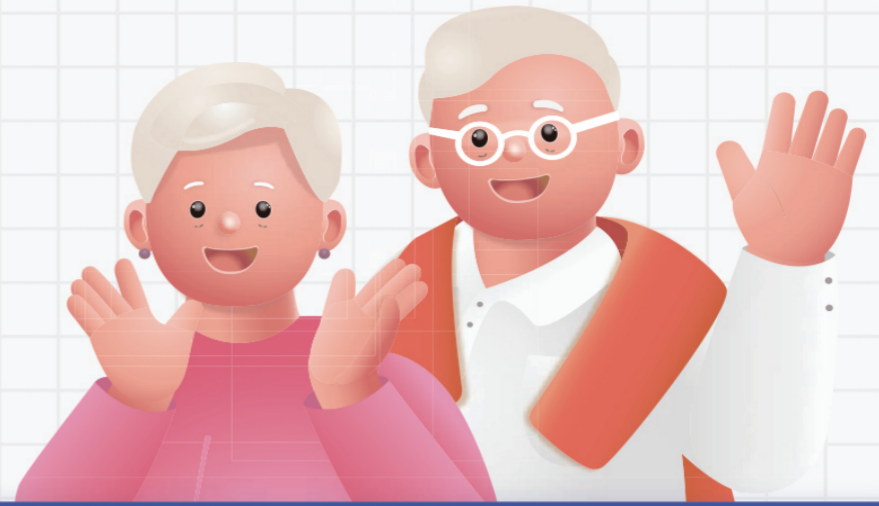
상주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For more success with SANGJU

더 큰 성공을 위한 선택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세요!



어르신은 왜 접종이 필요한가요?

- ✓ 변이바이러스에 의해 코로나19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새로운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 65세 이상 어르신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 65세 이상은 65세 미만에 비해 치명률이 약 40배 높습니다.
 - 2022년 사망원인 3위는 코로나19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91.9%로 나타났습니다.
* 통계청,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2023.9.21.)
 - WHO, 미, 영, 일, 호주 등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의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 ✓ 이번 신규 백신은 현재 발생하는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맞춤형 백신입니다.**

 - 기존 백신에 비해 현재 발생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최대 4배 효과가 높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면 입원·사망 위험을 약 1/20로 줄일 수 있습니다.

'23-' 24절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 접종백신** 현재 변이에 맞춘 신규백신(XBB기반)
- 권고대상**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 및 종사자
| **접종대상** | 12세 이상(이전 접종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접종가능)
- 접종일정** 2023.10.19.(목)~2024.3.31.(일)

접종 일정	접종 대상
2023.10.19.(목)~2024.3.31.(일)	65세 이상,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 및 종사자
2023.11.1.(수)~2024.3.31.(일)	그 외 12-64세

-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병 의원) 및 보건소

 - 사전 예약 없이도 **당일**에 바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 사전예약도 가능합니다: 1339 전화예약 및 누리집(<https://ncvr.kdca.go.kr>) 접속 (대리 예약 가능)



잠깐,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같이 맞아도 될까요?

- ▶ 가능하다면 두 백신을 같은 날 동시에 맞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 ▶ 지난 동절기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같이 맞은 분들의 이상사례 신고율은 코로나19만 맞은 분들에 비해 접종부위 통증 등이 약 40% 낮았습니다.



질병관리청



경상북도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